



‘시총 100조’ 현대차, 피지컬 AI 타고 질주

로보틱스·자율주행 ‘양대 축’
미래성장 동력 공유에 신뢰 상승
장중 49만6500원, 시총 100조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미래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사상 처음으로 시
가총액 100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이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CES 2026에서 아틀라스와 스팟
등의 로봇을 공개하며 로보틱스와 자율
주행의 양대 축으로 자리잡은 ‘피지컬
AI’ 전략을 공유했다. 뚜렷한 미래 성장
동력을 공유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확보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장 초반 49만6500원까지 오르며 한때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넘어섰다. 최근
현대차의 흐름을 보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이어 시가 총액 200조원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같은 성장 배경에는 피지컬 AI 전
략이 자리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지
난 5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가전·정보
기술 전시회 CES 2026에서 차세대 휴
머노이드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AI 로
보틱스 전략을 제시했다.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공장 HM
GMA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으로 작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전
략을 제시했다. 아틀라스는 글로벌 시
장에서 주목받았으며 글로벌 IT 전문
매체 CNET의 ‘최고의 로봇’ 상을 수상
했다.

또 로보틱스와 함께 피지컬 AI의 한
축을 이루는 자율주행차 분야의 경쟁력
도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그룹 합작법



생산자물가 낙달째 ‘상승’

반도체 가격과 농림수산물 물가 오름세에 생산자물가가 4개월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20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농림수산물을 살펴보고 있다.한국은행이 이날 발표한 ‘2025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생산자물가지수가 121.76(2020년=100 기준)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산자물가지수는 낙달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 2025년 연간 상승률은 1.2%를 기록했다.

/뉴시스

인 모셔낼은 올해 말 라스베이거스에서
미국자동차공학회(SAE) 기준 레벨4수
준의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 준비
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세계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북미에서
미국과 중국의 기업과 로보택시 기술 주
도권에 나선다는 점에서 세계 테크 기업
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테크 기업 출신
의 글로벌 인재 영입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테슬라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의
핵심인 오토파일럿 개발에 참여했고 엔
비디아에서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부
문 부사장을 지낸 박민우 박사를 그룹
첨단차플랫폼(AVP) 본부장으로 전격
영입했다. 지난해 말 사임한 송창현 AV

P 본부장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6일에는 테슬라에서 자율주
행 시스템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
봇 옵티머스 개발을 총괄한 밀란 코박을
현대차그룹의 자문역으로 선임했다.

이처럼 미래 성장 가치를 인정받으며
현대차 주가는 빠르게 상승했다. 덕분
에 지난해 미국 관세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현대차그룹은 AI 로보틱스 생태계
구축을 위해 올해 미국 내 ‘로봇 메타
플랫폼 응용 센터’를 개소한다. 로봇의
실전 투입 전 학습과 검증을 전담하는
일종의 ‘로봇 훈련소’를 구축해 스마트
팩토리의 지능화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의 대량생산
체제를 구축해 2028년부터 미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아메리카(HMGMA)의 부
품 분류 공정에 아틀라스를 투입하고,
2030년부터 고난도 부품 조립도 맡긴다
는 목표를 제시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미국 관세
악재에도 불구하고 실적 선방과 시총 증
대를 통해 확보한 자본을 바탕으로 자율
주행과 SDV, 친환경차, 로보틱스 등 미
래 핵심 기술 개발과 인재 확보에 공격
적으로 나설 수 있게됐다”며 “올해 하반
기 자율주행 로드맵과 신형시장 현지화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HMM 인수전 앞두고 스타키스트 가치 평가 동원, 실탄점점 나서

동원그룹이 미국 자회사 스타키스트
의 기업가치 평가에 착수했다. 시장에
서는 이를 두고 향후 대규모 인수합병
(M&A)을 염두에 둔 사전 자금 조달 점
검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매
각 절차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국내
최대 해운사 HMM 인수전에 대비한 포
석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동원산업은 미국
100% 자회사인 스타키스트의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에 평가를 의
뢰하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 가
능 규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스타키스트는 동원그룹이 2008년 인
수한 글로벌 참치 브랜드로 그룹 내에서
도 대표적인 수익 창출 자산으로 꼽힌
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액은
8872억 원, 영업이익은 1150억 원을 기
록했다. 과거 동원산업 사업 부문을 이
끌었던 재무통 민은홍 대표는 지난해 2
월 사장 승진과 함께 스타키스트 최고경
영자(CEO)를 맡고 있다.

동원산업, 스타키스트 평가 의뢰 금융기관서 자금조달 규모도 검토 2조 지분 동원F&B 이전 시나리오

시장에서는 동원산업이 스타키스트
지분 전량을 약 2조 원 수준으로 평가해
그룹 계열사인 동원F&B로 넘기는 내
부 거래 시나리오에 주목하고 있다. 이
경우 동원산업은 지분 이전 대가로 2조
원 안팎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이는
향후 HMM 인수를 위한 실탄으로 활용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는 HMM 매각 절차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흐름과 맞물리며 힘을 얻고
있다. 산업은행은 지난해 말 HMM 주
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실사에 재착수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과 해양
진흥공사가 보유한 HMM 지분은 각각
35% 안팎으로, 경영권 매각이 본격화될
경우 최소 6조~7조 원 규모의 자금이 필
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동원그룹은 이미 지난해 말 그룹 차
원에서 HMM 인수를 위한 태스크포스(T
F)를 꾸린 바 있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동원산업은 그룹 지주사로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복수의 M&A를 검토
중”이라며 “이를 위한 자금 조달 가능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스타키스트의 가치산
정을 외부 평가기관에 의뢰해 받아볼 계
획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조달 가능한 규
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스타키스트 매각 여부나 구
체적인 거래 구조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
다”고 선을 그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특고·프리랜서도 퇴직금 보장 ‘근로자 추정제’ 추진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 추진
노동부, 오는 5월1일 국회통과 목표
형식상 개인사업자, 실질 근로자 보호
사업주가 노동자성 입증책임져야

정부가 특수고용직·플랫폼종사자·프
리랜서 등 근로기준법 보호 밖에 있던
노동을 포괄하는 이른바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본격 추진한다.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노무 제공 사
실만 확인되면 우선 근로자로 추정하
고, 이를 뒤집을 책임은 사업주가 지도
록 하는 ‘근로자 추정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
법’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김태
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통해 ‘일하
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발의하고, 오는 5월 1일
노동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
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자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근로
자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 확산과 함께 형식상 개인사업자이지
만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가까운 특고·
프리랜서가 급증하면서 보호 사각지대가
확대됐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계약 명칭과

관계없이 타인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모든 사람을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한다. 노무를 제
공받는 주체도 전통적 사용자뿐 아니라
보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플랫폼 사업
자까지 포함한다. 법안에는 존엄과 평
등, 안전과 건강, 공정한 계약과 적정보
수, 일·생활 균형, 단결권 등 8대 권리가
명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금지
조항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종
사자까지 확대된다.

패키지 입법의 가장 큰 변화는 근로자
추정제다. 타인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
공했다’는 사실만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
정하고,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은 사업주

가 입증해야 한다. 사업소득세 3.3%를
적용받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도 대상
에 포함된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아나
운서·기상캐스터·플랫폼 종사자 등도 노
무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자로 추정
돼 최저임금, 퇴직급여, 임금체불 등 근
로자 전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감
독관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감독관은 사
업주에게 계약서, 업무 지시 내역, 보수
지급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
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 과
태료가 부과된다.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대한 소득정보 요구권도 확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최소한의 삶 보장” 기본사회위원회 신설…대
통령이 직접 위원장 맡아
▲이 대통령 “국민 여론, ‘원전 추가’ 압도적…이
념 의제화 말고 모여서 논쟁해야” /사진 뉴시스

▲당정, 행정통합 보고회 개최…“분권형 자치정
부 모델 지향해야”
▲與 김용민 “중수청 이원화 기형적 제도…수사
사법관, 법원서도 반발”

▲국민의힘, 청와대 앞 규탄대회… 송언석 “쌍특
검 반드시 수용해야”
▲국힘 소장파 ‘대안과 미래’ “장동혁 단식투쟁
적극 지지…당 통합 저해 언행 중단돼야”

삼성, 테슬라 시칩 생산 임박… 파운드리사업 보폭 넓힌다

美 테일러 공장 EUV 장비 시험가동 본격 생산 앞두고 첨단공정 수요 확보 수익 개선 등 성장 모멘텀 회복 기대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파운드리 공장 가동을 앞두고 극자외선(EUV) 노광 장비 시험 가동에 착수했다. 테슬라의 차세대 자율주행 AI5 칩 생산을 앞두고 선단 공정 준비에 속도를 내는 만큼 파운드리사업 반등 가능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오는 3월부터 테일러 1공장에 EUV 노광 장비 시험 가동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는 식각·증착 장비를 차례로 들여와 올 하반기 본격 가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일러 공장의 주력 생산 품목이 될 전망이다 테슬라 차세대 AI칩 수주에 대응하기 위해 테일러 팹을 중심으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건설 중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전경.

/삼성전자

로 첨단 공정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테일러 공장은 2나노(nm·10억분의 1m) 게이트올아라운드(GAA) 공정의 핵심 생산 기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5년 7월 23조원 규모의 테슬라 자율주행 칩 AI6 수주 계약을 따냈다. 삼성전자는 올해 가동 예정인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등에서 2나

노급 선단 공정을 통해 테슬라 AI5와 AI6 칩을 생산할 것으로 계획이다.

특히 최근 테슬라가 AI5 칩의 설계가 거의 완료됐다고 언급하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반등 기대감도 커지는 모습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AI5 칩 설계는 거의 완료됐다”며 “AI6칩(설계)도 초기 단

계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머스크가 차세대 AI칩에 대해 ‘세계 최대 물량’과 ‘9개월 단위 설계 주기’를 공언하면서 업계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다. 그간 업계에서는 AI5 물량이 TSMC에 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삼성이 담당해야 할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AI3·AI4의 개발·양산 주기는 그간 3년 가량이 소요됐으나 AI5부터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사업 부문에서 지난해 애플의 차세대 아이폰에 탑재될 이미지센서도 수주하는 등 사업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사업을 합친 비메모리 부문에서 지난해 6조원 가량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되나 이 같은 수주 확대 움직임을 계기로 실적 개선을 이룰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

장의 글로벌 경영 행보에서도 나타난다. 이 회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출장에서 머스크를 만나 포괄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AMD, 메타, 인텔, 퀄컴, 버라이즌 등 주요 빅테크 고객사 CEO들과 연쇄 회동했다.

업계 관계자는 “테슬라가 차세대 AI칩 설계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리면서 내부 조율 과정을 거쳐 9개월 수준의 양산 주기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라며 “AI5는 TSMC와 삼성전자가 함께 맡기로 한 만큼 물량이 일정 부분 분산될 수는 있으나 특정 업체가 물량을 가져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선단 공정 중심으로 수율과 고객 신뢰도가 개선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회복이 기대된다”며 “EUV 공정이 선단 노드에서 활용되는 만큼, 테슬라 AI 칩에도 관련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재정부 “‘국민성장펀드’ 최대 40%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추진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 제도 신설

올해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시 최대 40%의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국내에 재투자하는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의 경우, 해외 주식을 다시 매수하면 혜택이 줄어드는 내용의 법개정도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오는 6~7월경 출시 예정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한다.

특히 투자액에 따라 최대 40%를 소득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3000만 원 미만은 40%, 3000만~5000만 원은 20%, 5000만~7000만 원은 10%를 적용한다.

아울러 기업성장 집합투자 기구(BDC)도 납입금 2억 원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재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공제하는 제도의 신설도 추진한다. 국내 주식 및 국내 주식형 펀드에 1년간 투자해야 하며, 주식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허용한다.

국내시장 복귀계좌를 통한 국내 주식 투자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개인당 매도 금액 5000만 원 한도이며 복귀 시기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득 공제한다. 1분기 매도 시 100%, 2분기 매도 시 80%, 하반기 매도 시 50%다.

단, 세제 혜택만을 노리는 등 해외주

식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선다.

국내시장 복귀 계좌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투자자가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개인투자자용 환헤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한다. 1인당 공제 한도는 500만 원이다.

다만 외환시장 안정화 목적의 이 같은 특례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이 개정안은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등 세제지원 대상 금융상품은 관계기관과 협조해 법안 시행에 맞춰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코스피, 13거래일만에 하락 마감

20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4904.66)보다 18.91포인트(0.39%) 내린 4885.75에 마감했다.

/뉴시스

서울 임대차 시장, ‘준월세’ 중심 구조재편

대출 규제·공급 감소 등 영향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준월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입주 물량 감소로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데다 강도높은 대출 규제가 맞물리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탓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초기 자금 부담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높은 월세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1~11월) 전국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은 62.7%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1년(1~11월 기준) 43.3%에서 ▲2022년 51.8% ▲2023년 54.8% ▲2024년 57.4%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KB부동산은 “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면서 2025년 들어 전월세 매물 가운데 월세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했다”며 “지난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치를 기록하며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사라진 순수 전세의 자리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전월세가 대신하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월

세의 경우 외국과 같은 순수 월세 비중은 5% 안팎에 불과한 반면 준월세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준월세 비중은 작년 55%까지 확대된 반면 전세 성격이 강한 준전세 비중은 40%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전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 속에서 임대인은 수익성 확보 및 세 부담 완화, 임차인은 전세·월세 부담을 동시에 조정하려는 선택이 맞물린 결과”라며 “입주물량 감소로 순수 전세 선택자가 줄어드는 가운데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계약 구조에 놓이고 있다”고 밝혔다.

준월세 보증금과 월세 모두 빠르게 오르고 있다.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과 월세는 지난 2022년 각각 9943만원, 128만원에서 2025년에는 보증금이 1억1307만원으로 1억원을 넘어섰고 월세도 149만원까지 상승했다.

윤 랩장은 “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임대인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준월세는 서울 전월세 시장의 핵심 계약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

경제계 “3차 상법 개정안, 배임죄 개선 논의해야”

경제 8단체, 제도 보완 필요성 지적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핵심 내용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는 논의되는 것과 관련해 경영 불확실성 확대를 우려하며 제도 보완과 배임죄 개선 논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 8단체는 3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법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 입법 취지는 회사 재산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에 유리하게 임의로 활용하는 행위 방지”인 만큼 상법 제341조에 따라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이에 해당하지만 제341조의2에 따라 합병 등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해당 사항이 없어 소각 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매년 보유·처분 계획을 주총 승인받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승인 여부에 따라 중장기 경영 전략의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고, 정기·임시 주총이 반복될 경우 의사결정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계획에 변동이 없는 경우 승인 주기를 3년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이다. 기존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6개월 유예 후 1년 이내 소각 규정을 완화해 유예 기간을 1년으로 늘리고 소각뿐 아니라 처분도 허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외에도 경제계는 상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배임죄 개선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단체들은 “배임죄 개선이 늦어지면서 기업들은 경영상 의사결정을 유보하거나 기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며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혁신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3차 상법 개정에서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등 배임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회사가 ‘근로자 아님’ 증명해야… 노동 분쟁구조 뒤집힌다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추진

노무 제공 입증 땐 근로자 ‘추정’
퇴직금·수당 미지급, 체불 전환
노동부 지시 불응 땐 처벌 가능
‘가짜 3.3 프리랜서’ 구조에 제동
연차·가산수당도 분쟁 땐 보호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시행되면 노동 분쟁의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프리랜서가 보호를 받기 위해 스스로 “근로자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일단 근로자로 추정된다. 기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을 둘러싼 장기간 공방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셈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건이다. 지금까지 프리랜서나 특고 종사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진정이나 고소가 각하되는 경우가 많았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체불 사건 조사 과정에서 근로자로 판단되면, 노동부가 퇴직금·가산수당 지급을 지도하고 불이행 시 형사처벌까지 가능해진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린 8.15 광복 80주년 기념 양대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그간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던 관행이 통하지 않게 된다. 계약서가 프리랜서라도 실제로 지휘·종속관계가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보호가 적용된다.

근로자 추정제는 자동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다만 계약해지(해고) 연차휴가나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당 종사자가 근로자로 인정되면 소급 적용된다. 외형상 개인사업자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단순 민사 분쟁이 아닌 체불 사건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겉으로는 노무제공자여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주40시간 초과 가산수당 미지급 등이 체불 사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부가 근로자성을 인정하면 가산수당 지급을 지도·명령하고, 불이행 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며 “민사로는 체불금 확인 소송이나 체불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의 직접적인 타격은 이른바 ‘가짜 3.3 계약’이다. 세금·규제 회피를 위해 무늬만 프리랜서인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관리·통제 아래 일

해온 경우다.

특히, 노무제공자가 계약 당시 4대 보험 가입이나 주52시간 규제 적용을 원치 않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계약이 끝난 뒤 근로자 추정제를 근거로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짜 3.3 계약이라면 프리랜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애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MBC 기상캐스터로 일하다 숨진 고 오요안씨 사건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근로자 추정제가 되면

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사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노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며 “이때 사측은 ‘이 사람은 나에게 노무를 제공했지만, 지휘·종속 관계는 아니어서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만일 사측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은 근로자로 인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은 강한 지휘·감독을 요구하지만,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지휘·감독이 약했다라도 다 일하는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웹툰 작가들도 예를 들면 담당자가 언제까지 납기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완성됐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텐데, 이 정도만 돼도 다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웹툰 작가 외에도 방송 스태프, 콘텐츠 제작 프리랜서 등도 마찬가지다.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단일 사용자 개념도 바뀐다. 배달기사의 경우 수수료 분쟁은 플랫폼 기업이, 괴롭힘 문제는 소속 회사가 각각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안별로 권리·의무 관계를 따지는 구조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산업진흥 ‘선별 규제’ 실험… 스타트업 부담·시민사회 우려 공존

인공지능 기본법

〈上〉자율과 통제 사이 줄타기

내일부터 시행, 세계 첫 전면 적용
산업진흥형 선별규제로 EU와 차별화
고영향 AI 인간관리, 생성형 표시 강화
스타트업 부담, 시민사회 우려 지속

오는 22일 ‘인공지능(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본격 시행된다. 세계 최초의 국가 단위 전면 시행이라는 상징성 속에서, 이 법이 산업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규제 부담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2024년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 가결되는 모습. /뉴시스

19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이번 인공지능기본법은 사전 규제보

다는 사후 관리와 자율 규범을 중심으로 설계돼, 산업 진흥과 위험 관리의 균형을 의도적으로 맞춘 것이 특징이다.

한국의 인공지능기본법은 규제 중심인 EU의 AI Act와는 궤를 달리한다. EU가 AI의 위험 수준을 네 단계로 나눠 촘촘하게 규제하는 방식을 택했다면, 한국은 산업 진흥에 더 무게를 둔 ‘선별적 규제’ 모델을 채택했다. 규제 대상은 모든 AI가 아니라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고영향, 고성능, 생성형 AI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한정된다. 이는 기술 혁신의 동력을 꺾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영역에서만 국가가 개입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이다.

법적 적용 대상인 AI 시스템의 정의도 명확해졌다. 목표·자율성·적응성·결과물 추론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모두 갖춘 시

스템만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온다. 단순히 정해진 규칙을 반복하는 자동화 프로그램은 제외되며, 데이터를 학습해 스스로 판단하고 예측하는 시스템만이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또한 법은 AI 개발자와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이용자와 결과물에 영향을 받는 자의 역할을 구분하여 향후 발생할 책임 소재의 기틀을 마련했다.

가장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 ‘고영향 인공지능’은 금융, 고용, 의료 등 개인의 권리와 생명에 직결된 분야로 특정됐다. 대출 심사나 채용 평가에 쓰이는 AI는 이제 사람이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하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발적인 조치를 증명해야 한다. 또한 텍스트나 영상을 만드는 생성형 AI에는 워터마크 부착 등 표시 의무가 부여된다. 이용자가 자신이 마

주한 결과물이 AI의 창작물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산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정부는 1년 이상의 계도 기간을 두고 사실조사권 집행을 최소화하며 ‘산업 길라잡이’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여전히 공포감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과 달리 규제 준수를 위한 법무 대응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기업들에는 법 시행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AI 스타트업의 대다수가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국내 AI 스타트업 101곳을 조사한 결과, 98%가 AI 기본법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서현 기자 seoh@

규모별 규제 벽에 성장멈춘 기업들… GDP 111조 손실

대한상의 SGI 분석, GDP 4.8% 감소
50인·300인 문턱에 기업 ‘안주 전략’
성과중심지원·성장유인 제도전환 제언

기업이 성장해 고용을 늘릴수록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조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한국 특유의 ‘성장 패널티’(Growth Penalty)’가 경제 전반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가 발표한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50

인·300인 등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억제하거나 분할을 선택하는 이른바 ‘안주 전략(Bunching)’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GI는 이러한 행태가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고착화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SGI는 “기업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으로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한다”며 “여기에 경직된 노동시장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배치된 인력이 고착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SGI가 구조적 모형을 활용해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생태계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은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25년 기준 약 111조 원 규모로, 최근 3년간(2022~2025년) 국내 GDP 누적 증가액(약 103조 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SGI는 기업 성장 사다리가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점도 지적했다. 소기업이 5년 뒤에도 10~49인 규모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해 1990년대(40%대)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소기업이 중규모 기

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낮아졌고, 대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0.05% 미만으로 떨어져 사실상 차단된 상태라는 분석이다.

SGI는 해법으로 ▲Up-or-Out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단순히 기업 연령이나 규모를 기준으로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매출·고용 증가 등 성과를 기준으로 스케일업 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성과가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과감히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담보 위주의 대출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와 민간 모험자본 확대를 통해 투자 중심의 성장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SGI는 성장 유인형 조세·지원 체계로의 전환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기업이 일정 규모를 넘는 순간 혜택은 사라지고 규제와 의무가 급격히 늘어나는 이른바 ‘계단식 규제’가 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구조적으로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SGI는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신설하고, 투자·고용 확대 등 국가 경제 기여도에 비례해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성장이 곧 혜택’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국내 시장규모 6조, 판매채널 확대… 건기식의 일상화

건강을 파는 시대

〈下〉 건기식 경쟁 치열

식품업계의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 시장 공략도 빨라지고 있다. 건기식이 일상적인 건강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은 데다 다이소·편의점 등 판매 채널 확장과 기능성·개인화 경쟁까지 맞물리며 시장 지형이 빠르게 바뀌는 모습이다.

◆ 커지는 규모에 너도나도 건기식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 규모는 2023년 6조2022억원으로 추산됐고, 2024년에는 6조440억원대로 집계됐다. 팬데믹 이후 건강관리가 생활화되며 시장은 6조원대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환경에서 식품기업들은 건기식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키우며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삼양식품은 식물성 헬스케어 브랜드 ‘월스랩(구 잭앤필)’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홀딩스는 자회사 대상웰라이프를 통해 환자용 균형 영양식 ‘뉴케어’, ‘마이밀’을 내놨다. 농심은 ‘라이필’ 중심으로 이너뷰티·기능성 라인업을 강화



건강기능식품이 있는 편의점 전경 사진.

/CU

식품기업, 차세대 성장동력 낙점

다이소, 편의점서 소용량 제품 판매

구체적 건강지표 개선… 기능성 경쟁

초개인화 제품·솔루션 수요도 커져

하고, CJ제일제당(CJ웰케어), 동원F&B(올리나) 등도 관련 제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 채널 다변화 진입장벽 낮아져

유통 채널 변화도 시장 확대를 밀어 올리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다이소는

2025년 2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건기식 판매를 시작하며 ‘소용량·균일가’ 수요를 자극했고, 편의점 업계도 건기식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11월 대용제약과 협업한 ‘투웍스(2주) 건강습관’ 콘셉트 제품을 선보이며 비타민·오메가3 등 품목을 소용량으로 구성해 판매에 나섰다.

GS25도 같은해 8월부터 5000원 이하 소용량 건기식 전개를 강화했고, 10월 기준 누적 판매량 80만개를 넘어 월말 100만개를 돌파했다. 현재 전국 5000여

개 매장이 인허가를 취득해 30여 종을 운영 중이다. CU도 전국 6000여 점포에서 건기식 판매 인허가를 확보하고 판매를 본격화했다.

◆ 기능성·초개인화 경쟁

제품 트렌드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저당·저칼로리처럼 떨어내는 콘셉트가 전면에 섰다면, 최근에는 혈당·체지방 등 구체적인 건강지표 개선을 내세운 ‘기능성 경쟁’이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인체적용시험 근거를 확보한 개별인정형 원료, 이중·복합 기능성 조합이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특히 개별인정형 원료는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제출해 식약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인정받은 업체만 해당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 인정을 받기까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최대 6년간 독점 제조·판매가 가능해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대표 사례로 KGC인삼공사의 혈당 관리 전문 브랜드 ‘GLPro’가 있다. 정관장 홍삼에서 추출한 개별인정형 원료 ‘KGC05pg’를 기반으로 공복혈당과 식후혈당, 당화혈색소, GLP-1 수치 등 6가지

혈당 지표 개선 효과를 입증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은 출시 7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넘겼다.

아울러 가구 단위 소비에서 개인 단위 루틴으로 소비가 이동하면서 연령·성별·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맞춤형 제품과 솔루션 수요가 커지고 있다.

현대그린푸드는 케어푸드 브랜드 ‘그리팅’을 통해 연령별·건강 목적별 맞춤 식단을 운영 중이다. 매일유업의 ‘셀렉스’ 역시 생애주기와 활동 목적에 따라 제품군을 세분화하고 있다.

플랫폼 기반 맞춤형 건기식 서비스도 성장 중이다. 건강 데이터와 AI 분석을 활용해 개인에게 적합한 영양제를 추천하고 정기 구독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건기식 소비 방식 자체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다이소와 편의점 등 생활 밀착 채널에서 건기식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면서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졌다”며 “최근들어 자신의 건강 목적에 맞는 제품을 골라 먹는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원세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청년층 ‘쉬었음’ 22.3%… 미취업 장기화, 노동이탈 키웠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
‘일자리 원치 않음’ 청년 45만명 ↑

‘쉬었음’ 청년 유보임금 3100만원
구직 눈높이 낮아… 中企 취업 선호

한국은행이 청년층의 ‘쉬었음’(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활동 사유가 없는 상태) 비중이 크게 늘며 노동시장 이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미취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구직 활동이 약해지고 ‘쉬었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져, 취약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진입을 돕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일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연구팀에 따르면 비경제활동인구 내 ‘쉬었음’ 비



서울 시내의 한 대학교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학생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중은 2019년 12.8%에서 2025년 15.8%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20~34세 청년층에서는 14.6%에서 22.3%로 더 가파르게 올라 ‘쉬었음’ 증가가 청년층에 집중

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증가의 성격에도 주목했다. ‘쉬었음’ 청년 가운데 “일 자리를 원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2019년 28만7000명에

서 2025년 45만명으로 늘었다. 한은은 이 같은 흐름이 재진입 가능성이 낮은 ‘쉬었음’이 확대되는 신호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YP2021)을 활용해 미취업 상태를 ‘구직’, ‘인적자본 투자(취업준비·훈련 등)’, ‘쉬었음’으로 나누고, 개인 특성에 따라 어떤 상태로 이동하는지 전이확률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초대졸 이하 청년은 4년제 이상 대비 ‘쉬었음’ 확률이 6.3%포인트(p) 높고, 진로적응도가 낮은 청년은 높은 청년보다 4.6%p 높은 것으로 제시됐다.

핵심은 ‘시간’이었다. 미취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 ‘쉬었음’ 확률은 4.0%p 상승하고, ‘구직’ 확률은 3.1%p 하락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업이 길어질수록 ‘쉬었음’으로 기울어지는 폭이 더 커지는(비선형) 모습도 관찰됐다. 특히 초대졸 이하에서는 기간 증가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미취업 기간 1년 증가 시 ‘쉬었음’ 이행확률이 5.4%p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쉬었음’ 증가를 단순히 “청년 눈높이가 높아져서”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쉬었음’ 청년의 유보임금(최소 희망임금)은 평균 3100만원 수준으로 다른 미취업 유형과 유사했고, 희망 기업 유형도 중소기업을 원하는 비중이 48.0%로 가장 높았다. 대기업(17.6%)과 공공기관(19.9%) 선호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김주형 기자 gh471@

수도권 인구집중 결정적 요인 ‘생산성’… 지방에 자원집중 필요

KDI 포커스 보고서 발표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3가지 특성 의해 도시규모 결정
지역 인프라 투자, 추세 반전 역부족

수도권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확충보다 지역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됐다.

김선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러한 내용의 KDI 포커스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요인과 공간정책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연구위원은 도시 규모는 ▲생산성 ▲쾌적도 ▲인구수용비용 등 3가지 특성

에 의해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생산성이란 같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쾌적도는 자연환경·주거여건·안전·생활편의 등 ‘그 도시에 사는 것 자체가 주는 만족도’를 뜻한다. 인구수용비용이란 인구가 늘어날수록 통근시간 증가, 주거비 상승, 교통 혼잡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적인 사회적·경제적 비용이다.

김 연구위원은 “생산성이 높은 도시는 높은 임금을 제공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쾌적한 도시는 같은 임금 수준에서도 거주하고자 하는 사람을 증가시켜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도 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구수용비용이 높은 도시는 인구가 늘어날수록 혼잡비용이 빠르게 커진다”며 “이를 상쇄하려면 높은 임금을 통한 보상이 필요하므로 인구가 적어지고 임금이 높아진다”고 했다. 생산성과 쾌적도가 높고 인구수용비용이 낮을수록 도시가 커진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3가지 특성 중 수도권 인구 비중 증가(2005년 기준 총인구의 47.4% → 2019년 49.8%)에 ‘생산성’이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5년을 기준으로 2019년의 생산성·쾌적도·인구수용비용 변화를 차례로 반영한 차례로 반영한 ‘가상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해 수도권 인구비중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했다. 그

결과, 다른 조건이 모두 2005년 수준에 머물고 생산성만 2005~2019년의 변화를 따랐다면 수도권 비중은 14.7%포인트(p)나 늘어난 62.1%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쾌적도와 인구수용비용 요인이 비수도권 인구 유출을 일부 완화하면서 실제 상승 폭은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이 결과는 지역인프라 투자 증가(인구수용비용 하락)로서의 균형발전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억제한다는 일차적 목표를 일정 수준 달성했음을 나타낸다”며 “그러나 막대한 재원을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음도 나타낸다”고 지적했다.



김선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도권 집중은 왜 계속되는가: 인구분포 결정 요인과 공간정책 함의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보고서는 일부 비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與, 공소청 보완수사권 두고 입씨름

공청회 열고 검찰개혁법 논의
강경파-일부 의원들 간 입장 팽팽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재확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 검찰개혁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의 대원칙 아래 국민 눈높이에 맞게 검찰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역사와 함께, 시대 정신과 함께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위원회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정부 검찰개혁안의 핵심인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의 쟁점을 놓고 토론했다.

검찰개혁안의 최대 쟁점은 공소청에 기존 검찰에 부여됐던 보완수사권을 주느냐 여부인데, 강경파 의원들은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주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의원들은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주자며 입장이 팽팽한 상황이다.

정 대표는 공청회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검찰청 폐지라는 큰 산을 넘어 무소불위의 검찰청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공수청과 중수청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국민 대토론회를 만들었다”며 “공수청과 중수청의 역할과 권한, 조직 구성과 세부 운영 방안까지 국민의 기대에 충족하는 최적의 검찰 개혁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검찰개혁 및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면 정부에서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며 “이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집단 지성의 힘을 모으자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됐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공수청과 중수청 신설 등 검찰 개혁에 대한 우리 당의 원칙은 분명하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말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칙”이라며 “이 대원칙은 한순간도 흔들린 적이 없는 검찰 개혁의 대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고자 했다. 첫 번째는 그간 폐단으로 지목돼 왔던 검찰의 검찰권의 남용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더 이상 검찰은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며 “두 번째로 이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특히 형사사법 기본권이 제한되거나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동시에 국가의 중대범죄 수사 역량 또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구체적 설명을 맡은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쟁점이 되는 공소청법 4조8호를 설명했다. 공소청법 4조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의 수사는 삭제했으나, 8호에 ‘법령에 따른 검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사항’이라고 돼 있어 검사가 직접 수사권과 보완 수사권을 가지도록 해석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노 부단장은 “(검사의) 직무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있지만,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제 한정될 것”이라며 “보완 수사에 대해선 형사법의 다른 조문들과 연계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권한의 남용뿐만 아니라 상호 견제, 업무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숙

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주시는 의견들을 포함해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형사법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안 찬성 측의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발제에서 공소청법 4조8호를 두고 “8호는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 수사가 제외됨에 따라 검사가 공소권자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법적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근거를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법령에 따라 명시된 검사의 직무 범위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새롭게 수사권을 창출하거나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더구나 이를 수행하기 위해 형사소송법 등 규정된 사항이라고 하는 부분도 관계 법령에 따라 한정되기 때문에 확대 해석할 순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공소 제기 유지 결정 및 거주지에 필요한 사항, 특사경 지휘 감독, 사법경찰 관리와 협의·지원, 그리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형사소송법 등을 통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심지어 대통령령으로 수사도 가능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공소청법엔 검사는 범죄를 수사하거나 수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단서를 명시하면 된다. 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기를 기다려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민간 무인기 북한 침투에 李 “전쟁 개시나 마찬가지”

철저한 수사·엄중 처벌 지시
“신뢰 깨지면 경제도 악영향”

이재명 대통령(사진)은 20일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주체가 민간인이라는 점에 대해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북 무인기와 관련해 “국방 전략 차원에서 정보수집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민간인들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민간인이 북한 지역에 무인기를 침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다. 북한 지역에 총 쏘는 것과 똑같다”며 “철저하게 수사해서 다시는 이런 짓을 못 하게 엄중하게 제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군 국지방공레이더 체계가 북한 영공에 침투된 민간 소형 무인기를 놓친 데 대해, 방공 감시망에 허점이 있다고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최첨단 과학기술 또는 국방 역량이 발전한 상태에서도 무인기가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체크하지 못하느냐”며 “뭔가 구멍이 났다는 얘기가. 필요하면 시설 장비 개선을 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게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 간 대결 분위기가 조성되면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며 “남북 사회에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적대 감정이 제고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호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허가제로 운영하는 지상파, 종합편성채널(종편) 등 방송사 보도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허용되는 게 아니다”라며 “인터넷 언론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쓸래’는 표현의 자유로 100%를 보장해야겠지만 최소한 공공과라든지 이런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물론 그걸 어떻게 심사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지는 최대한 중립적으로 하는 게 당연한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



‘1억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조사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경찰 출석

“제 삶 원칙 지키며 살아와”

‘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0일 피의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강 의원이 김경 서울시의원 지남 원내대표와 의논하는 녹취가 공개된 지 22일 만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오갔는지 여부에 대해, 핵심 당사자들 간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실제 규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어두운 코트 차림으로 이날 오전 8시57분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출석한 강 의원은 “제

는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다.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은 ‘공천헌금 1억을 직접 받았는지’, ‘돈을 받고 김경 서울시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사실이 있는지’, ‘금품은 누가 먼저 제안했는지’ 등 취해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경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실제 수수 여부와 그 자리에 강 의원이 동석했거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추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총 10명 규모의 수사지원계를 신설 구성해 강 의원과 김병기 전 원내대표 등 정치인 비위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쌍특검법 촉구”… 청와대 앞에서 규탄대회

국힘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기조 전환과 ‘쌍특검(통일교 게이트·공천 뇌물)’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지 6일차를 맞은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열리는 청와대 앞에 모여 정부·여당을 향해 쌍특검법안을 반드시 수용하라는 규탄대회를 벌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상임위 간사 등 수십여명의 의원들은 영하 13도 안팎까지 떨어진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무궁화동산 앞에 모여 “통일교 게이트 진실규명, 쌍특검법 수용하라”, “공천 뇌물 즉각 처벌, 쌍특검법 즉각 실시하라”고 구호를 제창하며 규탄대회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송언석 원내대표, 나경원·최형두·주진우 의원의 연설을 통해 민주당은 장 대표의 단식을 조롱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쌍특검법을 수용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음주운전이 왜 위험한지 아는가. 멈춰야 할 순간에 멈추지 않고, 속도를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끝은 사고와 파국”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이 이와 똑같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은 다수당이냐 집권당으로서 매우 웅중하고 비열한 언행을 보이고 있다”며 “야당 당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명분이 없는 단식’, ‘밥 먹고 싸우라’면서 조롱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6개월 내란 특검을 할 만큼했다. 3대 특검에 500억원

을 쓰면서 수사 인력을 동원하면서 120여명을 기소했다”며 “그런데도 그들은 재탕, 삼탕의 특검을 하고자 한다. 그들은 154억원을 들여서 251명을 투입해 최장 170일의 특검을 또 하겠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민생 수사는 곳곳이 펑크나고 있다. 검찰의 장기 미제 사건은 1만8000건에서 3만7000건으로 폭증했고 강도 살인 사건 등 5대 범죄도 1600건에서 4100건으로 장기 미제가 폭증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주진우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의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을 두고 “김경이 뇌물 주고 한 짓이 무엇인가. 자기 남동생, 여동생 회사 설립해서 연구용역 돈 빼 먹고 부동산 시행사업하면서 서울시 예산을 다 빼먹었다”며 “이렇게 뇌물을 받게 되면 국민 주머니에서 이를 충당하고 뇌물의 100배, 1000배 달하는 액수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생산적 금융을 실천하며
모두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기업의 도전이 멈추지 않도록
산업의 성장이 이어지도록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핵심 성장 산업 지원
K-밸류체인 강화

신재생에너지
에너지고속도로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신재생에너지·에너지고속도로

● 핵심 성장 산업 지원 · K-밸류체인 강화

●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중소·중견기업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신뢰 최우선, 회사·고객 ‘균형성장’… 일류 신한라이프 도약

2026 보험, 위기와 기회

신한라이프

올해 비전 ‘밸런스가 좋은 회사’
안정적 자본 확보 등 ‘신뢰’ 구체화
인공지능·디지털 전환, 업무 효율화
쏠라체 홈 미사 등 시니어사업 확대

신한라이프가 2026년 경영전략 슬로건으로 ‘트러스트 퍼스트, 밸런스 그로쓰(Trust First, Balanced Growth) 2026’을 내걸고 내실과 균형 있는 성장에 방점을 찍었다. 통합5주년을 맞는 올해는 자본여력과 CSM(보험계약마진)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AX·DX 전환과 시니어 사업 확대로 위기 속에서 기회를 포착하겠다는 구상이다.

◆ 자본여력·CSM·소비자보호 우선

이번 전략 재정렬은 리더십 교체와도 맞물린다. 이영종 전 대표가 ‘2+1 임기’를 마무리한 뒤 천상영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2026년은 새 경영진이 ‘균형 성장’의 실행력을 본격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첫 해다.

올해 신한라이프는 경영전략회의에



천상영 신한라이프 대표이사 사장.



신한라이프케어의 쏠라체 홈 미사 오픈 기념식에서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앞줄 왼쪽 첫번째) 등 시설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라이프

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비전으로 ‘밸런스(Balance)가 좋은 회사’를 제시했다. 재무적 성과에만 매이지 않고 회사의 현재와 미래, 고객 가치와 회사 가치 간 균형을 추구하겠다는 의미다.

실적은 ‘내실 강화’의 기반이다. 신한라이프는 2025년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5145억원을 기록했다. 9월 말 기준 총 자산은 60조3793억원으로 집계됐다. 핵심 수익지표인 CSM은 전년 말 대비 5.3% 증가한 7조6000억원, K-ICS(지급여력비율)는 190%(잠정치) 수준을 유지했다. 3분기 누적 기준 보험손익은 5738억원, 금융손익은 1789억원으로 집계됐다.

신한라이프는 ‘신뢰(Trust)’를 실행 과제로 구체화했다. 안정적인 자본여력 확보와 CSM 포트폴리오 구축에 집중하고,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정책을 두텁게 추진한다. 보험금 지급, 불완전판매, 민원 등 영업 현장의 효율을 높여 소비자보호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점을 2026년 실행 과제로 내걸었다.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은 “보험업은 단거리 스프린트가 아닌 마라톤 처럼 가장 긴 호흡으로 고객의 삶과 함께하는 금융업”이라며 “안정적인 성장과 고객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일류

신한라이프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 시니어 사업으로 성장동력 확장

‘균형 성장’의 축은 AX(인공지능 전환)·DX(디지털 전환), 시니어 사업 확대다. 고객 접점에서의 편의성을 높이고 업무 효율을 끌어 올려 고품격 흐름에 맞춘 신사업 기반을 통해 변화하는 금융 패러다임에 대응한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이 추진하는 금융 본연의 기능 강화와 미래 경쟁력 제고 전략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니어 사업은 이미 ‘구체적인 사업’ 단계다. 신한라이프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는 지난 15일 경

기 하남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SOLACE) 홈 미사’를 열었다.

해당 시설은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과 함께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고려한 돌봄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노인요양시설이다. 1인 1실 중심 구조, 안전·신체 편의·스마트 돌봄 요소 반영, 시력 약자를 고려한 전용 글꼴 적용 등 ‘프리미엄 표준’을 내세웠다.

쏠라체(SOLACE)는 신한금융그룹의 디지털 브랜드 ‘솔(SOL)’과 이탈리아어 ‘베라체(VERACE·진정한, 진실된, 참된)’를 결합해 개발된 브랜드다. 신한라이프는 쏠라체를 본격적으로 운영해 진정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시니어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쏠라체 홈 미사는 신한금융이 선보이는 첫 시니어 시설로, 금융·주거·의료 서비스를 한 공간에 담아낸 모델”이라며 “운명을 통해 쌓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차분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한돈에 100만원 눈앞… 금값 ‘사상 최고가’ 하나銀, 은퇴준비 신호등·은퇴 MBTI 출시

美, 그린란드 병합·관세 압박 영향 국제금가격 온스당 4700달러 앞뒤

국제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온스당 4700달러를 목전에 뒀다. 국내 금 가격도 빠르게 상승해 한 돈에 100만원을 앞뒀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요구 이후 동맹국을 향한 관세 위협을 본격화하며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고,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독립성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금값을 끌어 올렸다.

20일 뉴욕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간) 거래된 2월 인도물 금선물 가격 증가는 트로이온스(31.1g)당 4677.70달러다. 전 거래일 증가 대비 82.30달러(1.79%) 급등했으며, 종전 사상 최고가인 4635.70달러를 경신했다. 금값은 올해 들어만 336.6달러(7.8%) 상승했으며, 사상 최고가를 세 차례 경신했다.

국내 금 가격도 가파르게 올랐다. 한 국거래소에 따르면 20일 기준 국내 금



서울 종로구 한국금거래소에서 직원들이 골드바를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

현물 증가는 g당 22만4700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1만8510원(8.98%) 상승했으며, 금 투기 열풍으로 국내 금 가격이 국제 가격보다 10% 이상 높게 형성됐던 지난해 10월 15일 이후 최고 수준이다. 같은날 한국금거래소의 실물 금 가격은 한돈(3.75g)에 98만1000원을 기록해 100만원을 목전에 뒀다.

최근 금 가격이 급등한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 요구를 지속중인 가운데,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국가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어서다.

빠르게 격화하는 미 연방정부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충돌도 금 수요를 부추겼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지난 9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강제 조사에 돌입했다. 파월 의장이 연준 본관 개·보수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이와 관련해 허위 증언을 했다는 혐의다. 이번 조사가 연준에 금리 인하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과 함께 연준의 독립성이 위협받으면서 달러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불거졌다.

글로벌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보고서에서 “트럼프의 이번 조치는 지난해 유럽연합(EU)과 체결했던 무역 협상을 뒤 흔들었으며, 지정학적 불안정에 대한 우려도 불러일으켰다”면서 “이란의 불확실성, 연준 독립성에 대한 우려, 연방 재정제에 대한 우려는 투자자들의 달러 및 미국 국제 회회 심리를 불려와 금을 비롯한 실물 자산의 수요를 견고하게 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개인 삶·성향 반영 맞춤형 은퇴설계

하나은행은 은퇴설계·상속증여 솔루션 브랜드인 ‘하나더넥스트’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은퇴준비 신호등·은퇴 MBTI’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은퇴준비 신호등’과 ‘은퇴 MBTI’ 서비스는 개인의 삶과 성향을 반영한 맞춤형 은퇴 설계를 제공함으로써 손님의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은퇴준비 신호등’은 손님의 자산 현황과 은퇴 준비 수준을 ▲초록(좋음) ▲

노랑(보통) ▲빨강(부족)의 3단계 색상으로 시각화해 은퇴 준비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콘텐츠다. 10가지 간단한 질문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은퇴 준비 수준을 손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은퇴 MBTI’는 ▲은퇴 여부 ▲현금 흐름 ▲여유자금 보유 여부 등 주요 질문을 바탕으로 총 16가지 은퇴 유형을 구분하고 유형별로 적합한 맞춤형 은퇴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손님은 자신의 은퇴 성향을 이해하고 실행 가능한 은퇴 전략을 설계할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5@

GS건설, 내집구매 전 과정 온라인 관리

통합서비스 플랫폼 ‘마이 자이’ 오픈

GS건설이 분양부터 계약, 입주까지 내 집을 구매하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통합 관리하는 계약고객 통합서비스 플랫폼 ‘마이(My) 자이’를 오픈한다.

마이 자이는 자이 아파트 계약 고객을 위한 온라인 전용 서비스다. 계약부터 잔금 완납까지 한 화면에서 관리하

는 통합 플랫폼이다. 계약 변경과 정정, 중도금 및 잔금 납부는 물론, 환불 신청과 소유권 이전 등기 관련 서류 접수까지 온라인으로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전화나 현장 창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스스로 계약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다.

GS건설은 마이 자이를 통해 분양 고객들이 입주할 때까지 ‘기다리는 소비

자’가 아니라 ‘직접 관리하는 이용자’로 전환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약 정보, 납부 내역, 각종 신청 이력을 데이터 기반으로 통합해 고객이 단순 조회를 넘어 계약·정산·입주에 이르는 절차 전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핵심이다.

마이 자이는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범여자이 입주 현장에 첫 도입했으며, 향후 입주 단지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K-패스’ 발급 주관사 토스 등 7곳 추가

내달 2일 발급… 토스는 26일부터

다음달부터 토스뱅크와 티머니에서도 모두의 카드(K-패스)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늘어나면 사용자 개별 소비 패턴에 따라 카드 사별 혜택을 다양하게 누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대중교통비가 환급되는 서비스 K-패스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신규 카드사는 전북은행, 신한,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곳이다. 토스뱅크를 제외한 6개 신규 카드사는 다음 달 2일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토스뱅크는 카드 발급과 회원가입, 등록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시범 사업을 다음 달 26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기

존에는 카드사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 별도로 K-패스 회원가입과 카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원스톱 서비스로 K-패스 이용이 보다 간편해질 전망이다.

전북은행, 신한,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의 경우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계층도 쉽게 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대면 서비스를 진행한다. 티머니 K-패스 선불카드는 편의점에서 구매 한 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 등록하면 된다.

올해부터 도입된 모두의카드는 한달 대중교통 이용금액에서 환급 기준 금액 초과분을 돌려주는 K-패스 정액권이다. K-패스 가입자라면 카드를 따로 발급 필요 없이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채리 인턴기자 cr56@

KAI, 리더십 공백 장기화… 자원확보·대형계약 등 한계 직면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 논란
지난해 6월 이후 직무대행 체제 운영
수출협상·후속지원 등 의사결정 차질
“민영화를 포함한 개선방안 논의해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대표이사 공백 상태에서 폴란드 FA-50PL 납기 지연과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감액에 따른 자원 공백이라는 해외 사업 리스크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 대형 수출 계약 이행과 공동개발 자원 보전 등 굵직한 의사결정이 집중되는 시점에 경영 컨트롤 타워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폴란드 국방·방산 매체 밀맥(MILMAG)은 최근 폴란드 국방조달청과 KAI가 FA-50PL 36대 인도 일정을 재조정해 첫 인도는 오는 2027



KF-21

년 중반, 최종 인도는 2029년 초로 늦춰졌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계획 대비 약 1~2년 지연된 것이다. MILMAG은 지정학적 상황과 공급망·생산 여건을 배경으로 언급하며 시제기 첫 시험비행이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AESA 레이더 등 첨단 항전

장비 통합·시험 지연이 일정 순연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일정 재조정으로 대형 수출 계약 이행 리스크가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KF-21 공동개발을 둘러싼 자원 리스크도 겹친다. 인도네시아는 당초 개발비 분담금 약 1조6000억원을 부담

하고 완제기 48대 도입을 추진하는 공동 개발 패키지에 참여했으나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축소하고 기술 이전 범위를 줄이는 데 한·인도네시아가 합의했다. 다만 분담금 감액으로 약 1조 원 규모의 개발 자원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를 정부 지원, KAI 자체 부담, 사업 구조 조정 중 어떤 방식으로 메울지가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문제는 이러한 대외 리스크를 조정해야 할 최고경영진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KAI는 강구영 전임 사장이 지난해 6월 조기 사퇴한 이후 7개월째 사장 공석 상태다. 회사는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최근 노조는 사장 선임 촉구 시위를 벌이며 수출 결재 지연과 KF-21·FA-50 일정 차질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또한 올해 KAI는 KF-21 양산과 공군 인도, 육군과 계약한 소형무장헬기(L

AH) 출고, 필리핀의 KF-21 20대 도입 협의 등 국내 생산과 해외 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여기에 필리핀 FA-50 성능개량·후속군수지원(PBL)까지 겹치며 양산·수출 협상·후속 지원이 한꺼번에 돌아가는 일정이 형성되고 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KAI는 오너십이 부재한 구조에서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며 그에 따른 부작용이 누적돼 왔다”며 “폴란드 FA-50PL 납품 일정 조정과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 축소 등 대외 변수가 겹친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리스크 관리와 의사결정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사장 선임과 함께 지배구조 개선 방안, 민영화 가능성까지 포함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metroseoul.co.kr

효성重, 차세대 전력보상장치 만든다

獨 스켈레톤·日 마루베니 업무협약
‘e-STATCOM’ 공동 개발 등 협력

효성중공업이 인공지능(AI) 시대 확산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전력 안정화 기술 선점에 나선다.

효성중공업은 독일 스켈레톤 테크놀로지스(Skeleton Technologies), 일본 마루베니(Marubeni)와 ‘e-STATCOM’ 개발 및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효성중공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자사의 스테콤(무효전력보상장치) 기술과 스켈레톤의 슈퍼커패시터(초고속 충·방전 장치) 솔루션을 결합해 2027년까지 차세대 전력보상장치인 ‘e-STATCOM’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스켈레톤의 전략적 파트너인 마루베니는 슈퍼커패시터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당한다.

e-STATCOM은 기존 스테콤에 고성능 에너지저장장치인 슈퍼커패시터를 결합한 차세대 전력 안정화 솔루션으로, 전력의 공급과 품질을 실시간으로 동시에 제어해 전력망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특징이다.



한영성 효성 상무(왼쪽부터), 요코타 타케시 효성중공업 부사장, Maximiliaan van de Poll 스켈레톤 전략 부사장, Dai Sakakura 마루베니 최고운영책임자(COO)가 ‘e-STATCOM’ 개발 협력 MOU 체결식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효성중공업

최근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는 AI 산업 성장으로 심화되는 전력 수급 불균형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동시에 완화할 수 있는 전력 안정화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e-STATCOM은 급격한 부하 변동에도 전력 계통이 상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미래 에너지 시장의 필수 인프라로 평가받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2027년 개발을 완료한 뒤 국내 최초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효성중공업은 2006년 국내 최초로 스테콤 개발에 성공한 이후 국내 시장을 선도해 왔다. 2015년에는 150MVar급 스테콤 상용화에 성공했고, 2018년에는 신영

주·신중주 변전소에 단일 설비 기준 세계 최대 규모였던 400Mvar급 스테콤을 설치했다.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주요 국가에도 스테콤을 공급하며 글로벌 전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핵심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전 세계 전력 시장은 AI 시대 전환과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맞물려 ‘슈퍼 사이클’을 맞이하고 있다”며 “효성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차세대 전력 솔루션 개발을 통해 전력망의 판도를 바꿀 계임체인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

LIG넥스원, 카타르 ‘DIMDEX’ 참가

신궁·현궁 등 종합 솔루션 제안

LIG넥스원은 카타르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DIMDEX 2026’에 참가해 중동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DIMDEX 2026’은 현지시간 19일부터 22일까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개최되는 중동 지역 최대 해양 방산 전시회다. 2년마다 열리며 이번이 10회째다. 카타르를 비롯해 각국 정부·국방부·방산기업 등 20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LIG넥스원은 ▲중거리·중고도 요격체계 ‘천궁-II’ ▲장거

리·고고도 요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휴대용 대공방어 무기 ‘신궁’ 등 저고도부터 고고도까지 아우르는 다층방어 통합 솔루션 ‘K-대공망’을 선보인다. 현지 군의 방공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미국 해외비교시험(FCT)을 통과한 2.75인치 유도로켓 ‘비궁’ ▲대화력전의 핵심 장비인 ‘대포병탐지레이더-II’ 등을 전시하며, 현지 군의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 솔루션을 제안할 계획이다.

/유혜은 기자

HD현대重, 4800억 규모 선박건조 계약

올해 들어 약 15억 달러 수주

HD현대중공업은 오세아니아 지역 선사사와 15만7000DWT급 원유운반선 2척, 11만5000DWT급 PC선(제품운반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계약금액은 4816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3.32% 규모다. 계약기간은 오는 2029년 6월 30일까지다.

/유혜은 기자

LG전자, 의류관리 가전 라인업 확대

26일 ‘LG 시스템 아이어닝’ 출시

LG전자가 세탁과 건조는 물론 살균·탈취·스타일링에 이어 다림질까지 아우르는 의류 관리 가전 라인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오는 26일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 스타일링 보드(다림판)를 하나로 결합한 올인원 의류 관리 솔루션 ‘LG 시스템 아이어닝’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LG 시스템 아이어닝’은 옷감 손상에 대한 부담을 낮추면서도 누구나 손쉽게 다림질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을 강화

한 제품이다. 스팀 다리미와 핸디 스티머에서 분사되는 미세 고압 스팀으로 수분이 남지 않도록 섬유 속 주름을 빠르게 펴주며, 고온으로 유해 세균을 99.99%까지 살균한다. 특히 먼, 율, 레이온 등 의류 소재에 따라 스팀 온도를 달리하는 7개 전용 코스를 제공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한다.

다림질 과정에서 옷이 다림판에 달라붙거나 다리미에 밀려 주름이 생기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액티브 스타일링 보드’ 기능을 적용했다. 스타일링 보드에 탑재된 팬이 바람을 불어 옷을 띄우거나



‘LG 시스템 아이어닝’ 신제품.

/LG전자

공기를 흡입해 고정함으로써, 얇고 하늘거리는 소재도 안정적으로 다림질할 수 있다. 스타일링 보드 커버는 분리 세척이 가능하며, 보드를 세로로 접을 수 있어 보관도 용이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르노코리아 “‘필랑트’ 직접 체험해보세요”

서울·부산 등 주요 지역 체험행사

르노코리아가 올해 야심작으로 공개한 ‘필랑트’를 소비자들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서울과 부산 등 주요 지역에 체험 행사인 ‘메종 필랑트’(MAISON FILANTE)를 진행한다.

20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메종 필랑트는 우선 서울 강남구 스타필드 코엑스몰에서 1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 동안 팝업 부스로 진행된다.

르노코리아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르노 성수에서도 2월 2일까지 르노 필랑트를 전문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만나볼 수 있다. 단 방문 일정에 따라 전시 차량 종류는 상이하다.

부산 강서구 스타필드 시티 명지에서는 1월 28일부터 2월 2일까지 르노 필랑트 팝업 부스가 운영된다. 이 기간 중 메종 필랑트를 방문한 고객에게는 특별한 기념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양성운 기자 ysw@

중소 2곳 중 1곳, 규제애로 경험… ‘해결’보다 ‘순응·포기’

중기 옴부즈만, ‘규제 애로 실태조사’
규제애로 45%… 해결 노력은 37%
해결창구 1순위 지자체, 옴부즈만 2.2%
옴부즈만 인지도 31%, ‘모른다’ 69%
崔 “접근성 제고, 지자체 연계 강화”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규제애로를 경험하고 있지만 적극 해결보단 규제에 순응하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안다’는 기업은 10곳 중 3곳에 그쳤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의 중소기업 임직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규제애로를 겪은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45%로 절반에 가까웠다. ▲금융 규제(21.4%) ▲고용·노동 규제(18.6%) ▲안전 관련 규제(15%) 등이 주를 차지했다.

하지만 규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규제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는 기업은 전체의 37%에 그쳤다. 대다수 기업이 해결 방안을 찾기보단 사업을 규제 수준에 맞춰 축소·변형하거나 아예 포기한다는 답변이 주를 이뤘다.

규제 해결을 포기하는 이유로는 ‘해결하거나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가 50%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규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34.6%), ‘사업에 큰 영향을 주는 사안 이 아님’(11.5%) 등의 이유도 많았다.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기업들이 많이 찾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가 38.8%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공공기관(24.4%), 국민신문고(9.6%), 중앙부처(8%) 수준이었다. 국무총리 산하 차관급으로 규제 해결 기관인 중소기업 옴부

즈만을 찾는다는 답변은 고작 2.2%에 그쳤다.

많이 찾는 기관의 경우 접근성과 편의성이 좋거나 해결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는게 주된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규제 해결을 위해 찾는 해결 기관으로 공공기관을 선택한 기업들은 ‘접근성·편의성’,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선택한 기업은 ‘해결 가능성’을 높게 봤다.

국민신문고는 ‘제도 인지도가 높아서’가 주된 이유였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해결 가능성은 중앙부처와 국회 다음으로 높았다.

중기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들어는 봤다’(25.4%), ‘알고 있다’(5.8%) 등 인식하고 있는 곳은 응답 기업의 31%에 그쳤다.

반면 ‘모른다’는 답변이 전체의 69%에 달해 인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옴부즈만 제도 활성화에 필요한 요소로 ‘제도 홍보 강화’(64.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현장

에서 체험할 수 있는 성과’(16%), ‘규제 해결 권한 강화’(13.2%) 등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결국 기업들은 옴부즈만의 규제애로 해결 가능성과 전문성에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 편의성 등을 이유로 다른 기관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신뢰도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지만 인지도와 접근성은 아직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규제애로 건의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특히 기업들이 가장 많이 찾는 기관인 지자체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해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 절반 가량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중 절반 이상은 해결보다 사업포기를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포기가 아니라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창업기업 늘었지만 매출·고용은 ‘주춤’

창업기업 490만개, 전년비 1.5% 증가
종사자 833만명·평균 1.7명으로 감소
매출 1134조·평균 2.3억 4.3% 줄어

사업을 시작한지 7년 이내인 창업기업이 꾸준히 늘고 있다. 기술기반 창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종사자와 매출액은 다소 주춤했다. 창업기업 평균 종사자수는 1.7명, 평균 매출액은 2억3000만원에 그쳤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20일 내놓은 ‘2023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창업기업은 490만2000개로 전년보다 1.5% 증가했다. 창업기업 숫자는 2021년 454만9000개, 2022년 483만개였다. 이 기간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도 90만2599개(2021년)→96만4893개(2022년)→97만8847개(2023년)로 점점 늘었다. 5곳 중 1곳이 기술기반업종으로 창업했다.

창업기업 종사자 수는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 수(1911만8000명)의 43.6%인



세종시 어진동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833만명(평균 1.7명)으로 전년 대비 2.2% 줄었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 종사자는 249만9000명(평균 2.6명)으로, 전체 창업기업의 30%를 차지했다.

창업기업 전체 매출액은 중소기업(3301조3000억원)의 34.4%인 1134조6000억원(평균 2억3000원)으로 전년 대비 4.3% 떨어졌다. 이중 기술기반업종 매출액은 28.2%인 320조원(평균 3억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전체 창업가의 83.2%는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한다고 답했다. 실패 경험을 살려 다시 도전하는 재창업기업은 전체 29.0%, 평균 재창업 횟수는 2.2회로 조사됐다. 아울러 창업자의 64.8%는 ‘더 큰 경제적 수입(64.8%)’을 위해 창업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창업 시 필요한 소요자금은 평균 2억6000만원으로 주로 자기자금(95.2%)을 통해 조달했다. 은행·비은행 대출(28.3%), 개인 간 차용(8.8%) 등도 활용했다.

중기부 조정원 창업정책관은 “2023년은 엔데믹 전환과 함께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돼 창업 지면은 확대됐지만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여파로 창업기업의 경영 여건상 녹록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범부처 합동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3조5000억원 규모의 창업 지원예산을 투입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창업기업의 회복을 넘어 성장의 해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밸류체인안정화자금 1985억 푼다

네트워크론 1395억·팩토링 590억 접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밸류체인안정화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중진공은 21일부터 총 1985억원 수준의 밸류체인안정화자금 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에는 동반성장네트워크론(네트워크론) 1395억원, 매출채권팩토링(팩토링) 590억원이 포함돼 있다.

네트워크론은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한 발주기업이 수주 중소기업을 추천하면, 중진공이 발주서를 근거로 수주 중소기업에 생산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

납품 대금은 발주기업이 중진공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이는 중진공의 기존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 차별화된 공급망연계 금융으로, 발주서를 기반으로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진공과 협약이 체결된 발주기업과 최근 1년 이내 거래실적을 보유한 수주 중소기업이다. 지원 한도는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제조업은 2분의 1 이내)로 최대 15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잔액 한도 20억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올해는 발주기업이 추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론 지원 한도가 일부 확대된다. 대기업은 200억원에서 250억원, 중견기업은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해 생산자금 조달에 애를 먹는 수주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돕는다.

/김승호 기자

상생페이백 누적 1.306조… 1인당 평균 11만원 받아

중기부, 작년 9~12월 누적 지급 결과
소상공인 지원·소비촉진 효과 ‘톡톡’

지난해 시행한 ‘상생페이백’ 사업을 통해 국민 1170만명이 총 1조3060억원을 받았다.

1인당 평균 11만1570원 꼴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의 2025년 9~12월 소비 증가분에 대한 누적 지급액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지난 9~12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소비액을 초과

할 경우 증가분의 20%(4개월 최대 33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내수 경기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 9월15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시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국민 3명 중 1명꼴인 1564만명이 상생페이백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분의 3 수준인 1170만명이 한 차례 이상 상생페이백을 받았다.

상생페이백은 지난해 하반기 소비 진작과 디지털 온누리 앱 회원 수 증가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페이백을 받은 1170만명의 2024년 월평균 대비 지난해 9~12월 카드 소비 증가액은 17조7972억원을 기록했다. 월별 소비 증가액은 9월 4조289억원에서 12월 4조9886억원으로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해 9~11월 국내 9개 카드사의 개인카드 사용액 통계를 보면 월별 카드 소비액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각각 4.8%, 2.3%, 4.5%였다. 2024년 9~11월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1.2%, 2.8%, 2.7%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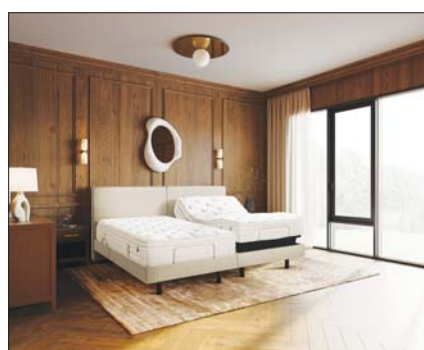
단품 할인 넘어 세트 등 혜택 강화

신세계까사(SHINSEGAECASA)가 새해를 맞아 2월 22일까지 신년 프로모션 ‘뉴 스타트 페스타’를 진행한다.

20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새해 집안 분위기 전반을 새롭게 바꾸길 원하는 집단장 수요를 겨냥해 까사미아와 마테라소의 주요 가구를 주거 공간별로 제안한다. 단품 할인에 그치지 않고 세트 및 연계 구매 혜택을 강화해 공간 전체를 보다 합리적으로 꾸밀 수 있도록 했다.

먼저 베드룸은 프리미엄 수면 브랜드 마테라소를 중심으로 신제품부터 대표 제품까지 폭넓은 혜택을 선보인다.

신제품 스마트 모션베드 ‘르 무브’와 비전 폼 매트리스 ‘오아시스 세도나’는 출시 기념 특별 혜택을 준비했다. 각각



신세계까사의 마테라소 르 무브 모션베드&오아시스 폼 매트리스.

단품으로 구매 시 회원 등급에 따라 최대 15%, 두 제품 세트 구매 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마테라소의 대표 매트리스 라인업도 다양한 구매 혜택을 마련했다. 럭셔리 매트리스 라인 ‘헤리티지 컬렉션’은 단품 구매 시 최대 25%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네이버 매출 '12조', 카카오 '8조' 불황에도 인터넷 투톱 체제 견고

네카오, 지난해 성적표 '우수'

네이버, 창사來 최대 실적 기록
네이버플러스 스토어 성장 견인

카카오, 플랫폼 광고 등 회복세
선택과 집중 전략 통해 수익성 개선

국내 인터넷 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며 '인터넷 투톱' 체제를 다시 한 번 증명했다. 네이버는 연 매출 12조원을 넘어섰고, 카카오는 8조원대 매출을 회복하며 반등의 신호를 분명히 보여줬다.

20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나란히 의미 있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경기 둔화와 플랫폼 규제, AI 투자 부담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숫자로 성과를 증명하며 국내 인터넷 산업의 중심축을 다시 세웠다는 평가다.

네이버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12조원을 돌파하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서치플랫폼의 안정적인 현금 창출력을 기반으로 커머스, 콘텐츠, 클라

NAVER
kakao

우드, AI 사업 전반이 고르게 성장했다. 특히 네이버플러스 스토어를 중심으로 한 커머스 부문은 거래액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웹툰과 웹소설을 중심으로 글로벌 확장이 가속화됐다. 북미와 일본 시장에서 유료 이용자 증가세가 이어지며 IP 기반 수익 구조가 한층 안정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네이버 클라우드는 공공·금융·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수주를 늘리며 AI 인프라 사업의 존재감을 키웠다.

카카오 역시 지난해 매출 8조원대를 회복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광고 시장 둔화와 계열사 구조조정 여파로 한때 성장세가 꺾였지만, 플랫폼 본업의 체력이 다시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한 플랫폼 광고와 커머스 거래

액이 회복세를 보였고, 콘텐츠 부문도 점진적인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특히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선택과 집중' 전략을 본격화했다. 비핵심 자산을 정리하고, 카카오톡·광고·커머스·AI 등 핵심 영역에 자원을 재배치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AI 역시 단기 수익보다는 중장기 플랫폼 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접근하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실적이 단순한 숫자를 넘어 상징성이 크다고 평가한다. 글로벌 빅테크와의 경쟁, 국내 플랫폼 규제 환경 속에서도 독자적인 사업 모델로 일정 수준의 성과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특히 AI 투자 확대 국면에서 현금 창출력이 다시 확인됐다는 점은 향후 전략 선택의 폭을 넓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지난해 실적으로 국내 인터넷 플랫폼이 여전히 성장 여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올해는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투자와 수익성 관리의 균형이 '투톱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지난달 24일 잠실 DN 콜로세움에서 진행된 SLL 현장모습.

/SOOP

SOOP·SLL 주최리그, 시청자 600만명 모여

비시즌 기간에도 이례적 성과 보여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비시즌 기간 진행된 SOOP·SLL 주최 리그가 누적 시청자 600만 명을 기록하며 흥행에 성공했다. 정규 시즌이 아닌 비시즌 대회가 이 정도 성과를 거둔 것은 이례적으로, e스포츠 콘텐츠 운영 방식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SOOP과 SLL이 공동 기획·운영한 LCK 비시즌 리그가 누적 시청자 수 600만 명을 넘기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정규 리그 공백기에도 팬들의 관심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숫자로 증명한 셈이다.

이번 비시즌 리그는 기존 공식 대회

와 달리 실험적 포맷과 자유로운 연출을 전면에 내세웠다. 팀 구성과 경기 방식에 변수를 주고, 선수 인터뷰와 비하인드 콘텐츠를 강화해 '경기 외 재미'를 확장했다는 평가다. 중계 역시 단순 경기 송출을 넘어 토크·분석·예능 요소를 결합한 형태로 구성됐다.

성과는 수치로 드러났다. SOOP 플랫폼 내 동시 시청자 수는 물론, 클립·다시보기·2차 콘텐츠 소비까지 포함한 누적 이용 지표가 빠르게 증가했다.

이 같은 성공은 LCK 생태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를 예고한다. 그동안 비시즌은 팬 관심이 급격히 줄어드는 공백기로 여겨졌지만, 별도의 콘텐츠 리그를 통해 트래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최빛나 기자

SKT, 1348억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 제기

'역대 최대' 과징금… 개보위에 소 제기 산정방식 형평성·과도함 이유 들어 사고 후속조치·재발방지 노력 입장

SK텔레콤이 지난해 발생한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 규모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결국 법정 싸움을 택했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행정소송 제기 마감 시한인 20일을 하루 앞둔 19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개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대리는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다. 현행 행정소송법상 기업은 처분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SKT는 작년 10월 말 의결서를 받은 뒤 고심 끝에 시한 직전 소송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건의 발단은 작년 4월 발생한 내부 시스템 해킹 사고다. 이 사고로 인해 SKT 가입자 약 2324만 명에서 최대 2700만 명에 달하는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민감 정보가 유출됐다. 개보위는 SKT의 보안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해 위원회 출범 이후 역대 최대치인 1347억9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2년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받은 과징금 합계액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SKT가 소송을 제기한 핵심 이유는 과징금 산정 방식의 형평성과 과도함에

있다는 분석이다. 개보위는 이번 과징금을 산출할 때 SKT의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반면 2023년 30만 건의 정보가 유출된 LG유플러스의 경우 '유출 시스템 관련 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68억원의 과징금만 부과한 바 있다. 여기에 해킹으로 인한 직·간접적인 실질 피해가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도 SKT 측의 주요 논거다.

SKT는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와 보호 서비스 제공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으며, 정보보호 혁신에 총 1조2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이미 과징금 전액을 납부한 SKT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카나나2', 고성능·효율화 향상

총 4종 신규모델, 오픈소스로 공개

카카오가 20일 자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언어모델 '카나나(Kanana)-2'를 업데이트하고, 총 4종의 신규 모델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첫 공개 이후 한 달여 만에 이뤄진 대규모 성능 개선으로, 고성능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다.

이번에 공개된 카나나-2 모델은 엔비디아 A100 수준의 범용 GPU 환경에서도 원활하게 구동되도록 최적화했다. 최신 초고가 인프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중소기업과 학계 연구자도 비용 부담 없이 고성능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실용성을 강화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핵심 기술은 전문가 혼합 방식(MoE) 아키텍처다. 전체 파라미터 규모는 320억 개이지만, 실제 추론 과정에서는 30억

개만 활성화해 연산 효율을 크게 높였다. 카카오는 MoE 학습에 필요한 커널을 직접 개발해 성능 저하 없이 학습 속도를 높이고 메모리 사용량을 줄였다.

학습 구조 역시 고도화했다. 사전 학습과 사후 학습 사이에 미드 트레이닝 단계를 새로 도입하고, 기존 지식을 잊는 치명적 망각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리플레이 기법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추론 능력을 추가하면서도 한국어 성능과 일반 상식 이해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카카오는 기본 모델을 포함해 지시 이행 모델, 추론 특화 모델, 미드 트레이닝 모델 등 총 4종을 허깅페이스에 공개했다. 연구 활용도가 높은 미드 트레이닝 탐색용 모델을 함께 제공해 오픈소스 생태계 기여도도 높였다.

/최빛나 기자

'국가대표 AI' 패자부활전에 스타트업 참가

모티프테크놀로지스·트릴리온랩스
스타트업 추가 공모 참여 공식화
네이버, NC AI, 카카오 불참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의 추가 공모(패자부활전)가 대기업의 이탈과 실력과 스타트업의 참전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AI 스타트업인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리온랩스가 독파모 추가 공모 참여를 공식화했다.

모티프테크놀로지스는 고성능 대형 언어모델(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모두 개발한 경험을 앞세워

"한국의 기술 독자성을 증명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들이 지난해 공개한 '모티프 12.7B'는 글로벌 성능 지수(AAII)에서 미스트랄 라지 3등 글로벌 모델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다.

함께 출사표를 던진 트릴리온랩스 역시 강력한 대항마로 평가받는다. 네이버 '하이퍼클로바X' 개발 주역인 신재민 대표가 설립한 이 회사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700억 개(70B) 파라미터 규모의 모델 '트리(Tri)-70B'를 독자 기술로 개발해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특히 허깅페이스의 '한국 AI 오픈소스 히트맵'에서 LG와 네이버에 이어 국

내 기업 중 3위를 기록할 만큼 기술적 실체가 뚜렷하다. 단순히 기존 모델을 미세조정(Fine-tuning)하는 수준을 넘어, 설계부터 학습까지 전 과정을 자체 수행하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 강점이다.

반면, 한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대기업들은 대거 발을 뺐다. 1차 평가에서 고배를 마셨던 네이버클라우드와 NC AI는 재도전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고, 카카오 역시 불참을 확정했다. KT 또한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들의 이탈은 '국가대표 AI'라는 타이틀이 주는 상징성보다 탈락할 경우 입을 이미지 타격과 과도한 경쟁 부담이 더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김서현 기자

LG U+,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 개발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맞손'

LG유플러스는 통신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통신장비 제조사 아리아텍과 함께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네트워크 오픈 API는 통신사가 가진 네트워크 기능을 표준화해 외부 개발자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술로, 이번엔 개발한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이라는 창구를 통해 외부에 전달된다. 외부 개발자 입장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통신사의 검증된 기능을 API 형태로 쉽게 도입해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오픈 API 플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네트워크 오픈 API 플랫폼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랫폼은 개인정보와 금융 보안을 강화하는 API(단말 번호 인증, SIM 변경 정보, 단말 위치 정보, 단말 상태 정보, 단말 기기 변경 정보)와 사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통신 품질을 높이는 'QoD(Quality On Demand)' 등을 API로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고환율·오천피에도 굳건… 서학개미, 美주식 251조 담았다

미국 주식 보관액 사상 최대 기록
기술주·지수형 ETF에 투자 집중
‘셀 아메리카’ 우려… 리스크 관리 필요

회사원 이모(43)씨는 코스피가 4700선을 넘은 지난 14일 갖고 있던 국내 주식 중 절반을 팔았다. 주가가 짧은 기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생각에 일부를 팔아 수익을 냈다. 이씨는 “코스피가 지금보다 5% 넘게 내려가면 남은 국내 주식도 다 팔 계획”이라며 “그 돈으로 장기 투자 중인 미국 원자력 관련 종목을 좀 더 살 생각”이라고 말했다.

코스피가 5000선에 바짝 다가서며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한국 개인투자자의 시선은 여전히 미국 시장을 향하고 있다. 미국 주식 보관금액이 250조원을 넘어섰다. 고환율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시장에서는 그린란드를 두고 미국과 유럽간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705억달러로 집계됐다. 원화 기준으로는 약 251조2448억원에 달



‘서학개미’가 해외 증시 중 미국 시장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모습.

/메트로경제

한다. 지난해 말 1636억달러(약 241조 1000억원)에서 불과 2주 만에 69억달러(약 10조1699억원) 늘어난 규모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고환율 국면에서도 미국 주식 매수세는 이어지고 있다. 국내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천피(코스피 5000)’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글로벌 기술주 중심의 투자 흐름은 쉽게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미국 주식 보관액은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증가해 왔다. 2022년 말 442억달러(약 65조1887억원)에 불과했던

보관액은 2023년 말 680억달러(약 100조2462억원)로 늘었고, 2024년 말에는 1121억달러(약 165조2588억원)로 1년 새 달러 기준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투자 대상은 기술주와 지수형 ETF에 집중돼 있다. 보관액 상위 종목에는 지난 16일 기준 테슬라(275.5억달러), 엔비디아(178.5억달러), 알파벳(72.3억달러), 팔란티어(63.1억달러), 애플(42.6억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마이크로소프트는 33억달러로 10위에 위치했다.

ETF 가운데서는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39.4억달러), 뱅가드 S&P500 ETF(36.8억달러), 나스닥 100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TQQQ(34.1억달러)가 상위권에 포함됐다. 특히 3배 레버리지 상품은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고위험 상품으로, 서학개미의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다.

시장에서는 미국 주식 쏠림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8개국을 상대로 ‘그린란드 관세’ 부과를 위협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미국자산 매도) 우려가 재부상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뉴욕증시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데이를 맞아 휴장한 가운데 선물시장에서 미 동부시간 정오 무렵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 선물은 모두 1% 안팎 약세를 보였다.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이날 같은 시간 99.05로 전장 대비 0.35% 하락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무역 전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주식 선물과 달러화 가치에 타격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트루스 소셜을 통해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핀란드 등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2월부터 10%, 6월부터 25%)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밝혔다.

인사이트엔베스트먼트의프란체스카 포르나사리 외환 설루션 책임자는 “많은 이들이 주말 사이 일어난 일에 상당히 경악하고 있다”며 “이들은 자신의 자산을 어떻게 보유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이체뱅크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가장 큰 채권자로 약 8조 달러(약 1경2000조원) 규모의 주식 및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증시에 ‘인공지능(AI) 붐’ 관련 고평가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다. 바클레이스는 AI 붐과 관련해 새해 들어 미국 증시 성과가 이미 다른 대부분 국가 증시 성과에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고객 사이에서 미국 관련 위험을 고려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하다고 진단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시장 질서 훼손시 용납 없다”… 리스크 영역 정밀점검

금감원, PER 운용사 CEO 간담회
내부통제·사회적 책임 재차 강조
‘핀셋 검사’로 시장 부담 최소화하고
불법엔 엄정 대응·자율규제는 지원

최근 기관전용 사모펀드(PEF)를 둘러싼 불법·편법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불러 시장 질서 확립과 역할 재정립을 주문했다. 단기 수익 중심의 투자 관행에서 벗어나 모험자본 공급과 기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연의 기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본원에서 12개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 CEO 간담회를 열고, PEF 산업의 신뢰 회복과 생산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일부 운용사의 불법·부당 행위로 PEF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마련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2025년은 일부 운용사의 불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뉴시스

부당 행위로 PEF 산업이 여러 어려움을 겪은 해였다”며 “시장 질서 유지와 사회적 책임 이행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PEF 산업이 지난 20여 년간 기업 구조개선과 성장기업 발굴을 통해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2004년 2개에서 2024년

1137개로 늘었고, 출자 약정액도 같은 기간 4000억원에서 15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그는 “그간 축적된 투자 경험과 경영 혁신 역량, 글로벌 네트워크는 우리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이 같은 긍정적 기능은 분명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일부 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로 시장 질서가 문란해지고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원장은 “시장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전면적인 규제 강화보다는 리스크가 집중된 영역을 정밀하게 점검하는 방식으로 감독 기조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저인망식의 일률적인 규제가 아니라 ‘핀셋 검사’를 통해 시장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며 “준법감시 지원과 컨설팅을 통해 운용사별 자율규제 역량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국면에서 PEF의 역할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이 원장은 과도한 차입이나 복잡한 거래 구조를 통한 단기 수익 추구에서 벗어나,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고 경영 혁신을 통해 가치를 높이는 투자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윤 기자



삼성증권 퇴직연금 DC·IRP 수익률 1위

원리금비보장 1년 부문

삼성증권이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 원리금비보장 부문에서 수익률 1위를 차지했다.

20일 삼성증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공시 기준 지난해 4분기 퇴직연금 DC 원리금비보장(1년) 부문에서 삼성증권은 수익률 21.02%를 기록하면서, DC 원리금비보장 적립금 3조원 이상 전사업자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 IRP 원리금비보장(1년) 부문에서도 IRP 원리금비보장 적립금 3조원 이상 증권사 중 1위(18.68%)를 기록했다.

퇴직연금의 투자자산 중 상장지수펀드(ETF)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며 높은 잔고성장률 수치를 기록했다. DC·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 ETF 잔고는 2024년말대비 118% 증가해, 3조4000억원에서 7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삼성증권은 이러한 ETF 투자 수요에 맞춰, ‘퇴직연금 ETF 모으기’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더불어 ‘퇴직연금 ETF 모으기’ 내에 연금고객 맞춤형 랭킹 정보도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godhe@

NH투자, 임원 가족 계좌 살핀다… 내부통제 강화

모든 임원으로 대상 확대

NH투자증권은 20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가족 계좌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기업금융(IB) 사업부 등이 해 상충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

이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이를 모든 임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신고된 계좌를 대상으로 한 샘플링 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내부통제 강화태스크포스팀(TFT)이 마련한

‘신뢰 강화 대책 방안’의 일환이다.

NH투자증권은 모든 임원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확대 시행은 주요 의사결정 주체인 경영진부터 더 엄격한 내부통제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공정 거래 관련 법적·

평판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장과 고객의 신뢰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은 NH투자증권 사장은 “고객의 이익이 회사와 임직원의 이익에 앞선다는 원칙을 경영 전반에 명확히 반영하겠다는 의미”라며 “내부통제 TFT를 중심으로 윤리경영과 책임경영 체계를 지속해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산업부, 가스공사 사장 재공모 결정 노조 “전문성·공정성 인사원칙 확인”

임추위 추천 후보자 부적합 판단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아
최연혜 사장 체제 당분간 유지

한국가스공사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다시 처음부터 진행된다.

20일 가스공사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3~5배수로 압축한 최종 후보자 전원에게 부적합 판단을 내리고 재공모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장 선임 절차는 전면 중단됐다.

앞서 가스공사는 지난해 11월 13일 신임 사장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지원자를 접수한 뒤, 임추위를 통해 최종 후보자 5명을 선정했다. 이들 후보에는 이인기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과 가스공사 출신 인사 4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라 임원 후보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부적당하

다고 판단될 경우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공모를 주문했다. 다만 구체적인 부적격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다.

관가에서는 주무 부처가 임추위가 추천한 최종 후보 전원을 탈락시키고 재공모를 요구한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공기업 수장 선임은 공개모집 이후 임추위 추천, 주무부처 검토,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되며, 주무부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재공모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 사장 선임 절차는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 8일 임기가 만료된 최연혜 사장 체제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기간 부적격 인사 배제와 재공모를 요구해 온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산업부 결정을 환영했다.

노조는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기관 인사에 있어 정부가 스스로 강조한 전문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제의 본질은 부적격 인사가 처음부터 걸러지지 않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부적절한 절차에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공사는 사실상 사장이 없는 상태로 4개월 이상의 경영 공백기를 더 갖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또 “공공기관 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인 만큼 정부와 대통령은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해야 한다”며 “본질적인 절차 개선 없이는 다음 공모에서도 부적격 인사가 재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 공모 시에도 부적격 인사가 후보로 지원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공사의 사장 선임 절차를 감시하며, 부적격 후보가 사장에 선임되지 않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농식품부, 농촌융복합산업 연계 강화

미식·컬처 등 농촌 경제활성화 활용

농림축산식품부가 제3차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계획은 최근 청년층의 농촌 창업 및 도시민의 라이프스타일 변화 등의 추세를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상황 인식하에 추진됐다.

특히 K-미식·K-컬처 등의 다양한 농촌 부존자원 연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K-미식벨트를 각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해 관광 상품화하고, 테마별 관광지도의 제작 및 적극 홍보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오는 2030년까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수를 2024년 기준 2525개에서 2030년까지 4000개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국민 농촌관광 경험률을 현재의 43.8%에서 5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

농촌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대상을 기존 농산물 활용 중심에서 자연·유희시설·식문화·경관 등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를 도입해 체류·휴양 프로그램, 식문화 체험, 지역 농특산물 브랜딩·마케팅 등도 인증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또 권역별 농촌창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성과공유 대회 등을 정례화해, 교류와 공유가 확



세종 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대되도록 지원한다.

농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K-컬처 연계 관광자원, K-미식자원(전통·유행 한식, 농가맛집 등) 등을 발굴하고 이와 연계한 관광 코스·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다양한 관광자원(농촌체험마을·시설, 동서트레일, 전통문화, 농가맛집, 찾아가는 양조장, 치유의숲 등)을 연계한 광역 단위 농촌 관광벨트 모델을 개발한다. 농촌관광 트렌드(일상탈출·휴식·힐링 선호 등)도 반영해 다양한 테마별 관광 콘텐츠 및 상품 개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관광 활성화 유도에 나선다. 인구감소 농촌을 포함한 권역 이동 시 농촌투어패스 가격 할인 등 혜택을 확대해 나가고, 농촌의 대표 숙박시설인 농촌민박의 품질 제고를 위해 도농교류법 개정을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고용부-중기부, 일자리분야 정책 공조

기술인력 양성, 청년일자리 등 협력
취업 유망 중소기업 발굴·지원 확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정책 공조에 나섰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체계 구축을 공식화했다.

이번 협약은 청년 취업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완화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양 부처는 앞으로 ▲청년과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신산업 수요에 맞춘 인력 양성 ▲현장 중심 고용·채용 지원 강화 ▲근로환경 개선과 지속 가능한 일자리 기반 조성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청년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취업



김영훈(왼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뉴시스

유망 중소기업 발굴과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AX(업무자동화·AI 전환) 지원과 노동부의 AI 직업훈련 사업을 연계해 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을 추진하고, 직업훈련 참여자의 취업·창업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의 희망리턴패키지와 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안전망도 보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취업지원·직업훈련·고용 서비스를 연계해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부담을 낮추고,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기반을 강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한다.

양 부처는 협약내용을 바탕으로 협업 과제를 구체화하고, 양 장관이 분기별로 만나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기관 추가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4곳

재생에너지 정책융자 취급 기관에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4곳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역과 밀접한 기관의 정책융자 취급을 허용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역과 밀접한 4개 금융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15개 기관에서 19개 기관으로 늘어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융자지원의 폭이 넓어져,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정책용

자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제도개선이 ‘햇빛소득마을’(마을공동체가 농지·유희지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수익을 공유하는 모델)의 전국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 유희부지를 발굴하고, 맞춤형 태양광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편성했다. 이같이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대 전환에 정책 역량을 모으는 방침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취급기관의 확대도 햇빛소득마을 등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속도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원 확대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수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공모

해양수산부가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 관련해 지자체의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공모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소외도서 항로 운영 지원사업은 여객선이나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소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의 편의 개선을 도모한다. 지자체가 행정선 등을 투입해 항로를 운영하는 경우, 선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50%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 15개 항로 및 18개 소외도서를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3개 항로를 추가 선정해 총 18개 항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공모기간 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수부는 사업 타당성과 계획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원 대상 항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허만욱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소외도서에도 정기적으로 선박을 운항해 섬 주민들의 해상교통 기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모든 국민이 불편함 없이 섬을 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검은콩 두유, 우유 수준 단백질 함유”

소비자원 1팩 기준 단백질 4~9g

검은콩 두유의 단백질 함량이 우유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유나 치즈 등 유제품의 유당(Lactose)을 소화하지 못하는 유당불내증 소비자에게 식물성 음료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검은콩·아몬드·오트 등 식물성 음료 11개 제품을 대

상으로 영양성분과 안전성, 가격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식물성 음료는 원료와 제품마다 열량과 3대 영양소(탄수화물·단백질·지방) 함량 차이가 컸다.

검은콩 두유는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가장 높았다. 1팩(190ml 기준)당 단백질은 4~9g, 지방은 4~7g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제품의 단백질 함량은 시판 멸균우유(190ml 기준, 단백질 6g)와 비슷

한 수준이었다.

반면 오트 음료는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높았고, 아몬드 음료(오트 혼합 제품 포함)는 열량과 3대 영양소 함량이 전반적으로 낮았다. ‘오트·아몬드 혼합’ 제품은 열량 35kcal, 탄수화물 4g, 단백질 1g, 지방 2g으로 가장 가벼운 영양 구성을 보였다.

검은콩 두유는 1팩당 558원에서 1050원, 아몬드·오트 음료는 663원에서 1717원으로 동일 유형 내에서 최대 2.6배 차이를 보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미국 휴스턴 해양 기술 전시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개최 기간 : 2026년 5월 4일 (월) ~ 2026년 5월 7일 (목)

개최 장소 : 미국 휴스턴 / NRG Center

OTC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는
매년 5월 미국 텍사스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해양 플랜트 전시회입니다.
이 전시회는 오일, 가스, 에너지 분야의 주요 기업들이 참가하며,
최신 기술 동향과 혁신적인 기술을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주요 구성 및 프로그램

- 유정기기 및 오일가스 수송 관련 제품
- 조선 및 해양플랜트 기자재
- 석유 및 가스 운송 장비
- 탐사장비
- 밸브 및 안전 장비
- 해저 파이프라인 및 플로우라인 기술
- 기술 발표 및 세미나
- 워크샵 및 기술 교류 프로그램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STEERING OFFSHORE ENERGY INNOVATION INTO THE FUTURE

박람회 및 전시회

NO	행사 명	개최 기간	국가 및 도시
1	엠티엠 메탈 월드 엑스포 [MTM EXPO SHANGHAI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2	상해 조선해양기술 박람회 [MarinTEC CHINA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5일	중국 / 상하이
3	상해 국제 금속 및 야금 박람회 [Metal World Expo 2025]	25년 12월 02일 ~ 12월 04일	중국 / 상하이
4	2026 국제 금형 주조 다이캐스팅 전시회 [EUROGUSS]	26년 1월 13일 ~ 1월 15일	독일 / 뉘른베르크
5	와이어/튜브 전시회 2026 [Wire&Tube Düsseldorf 2026]	26년 4월 13일 ~ 4월 17일	독일 / 뒤셀도르프
6	휴스턴 오프쇼어 박람회 2026 [Offshore Technology Conference 2026]	26년 5월 4일 ~ 5월 7일	미국 / 휴스턴
7	고기능 금속 전시회 2026 [Material JAPAN 2026]	26년 5월 13일 ~ 5월 15일	일본 / 오사카
8	밸브 월드 엑스포 캘거리 2026 [Valve World Expo Calgary 2026]	26년 6월 3일 ~ 6월 4일	캐나다 / 캘거리
9	상해 다이캐스팅 산업 박람회 2026 [CHINA DIECASTING 2026]	26년 7월 15일 ~ 7월 17일	중국 / 상하이
10	슈투트가르트 국제 금형 박람회 2026 [Moulding Expo 2026]	26년 9월 14일 ~ 9월 18일	캐나다 / 캘거리
11	상해 국제 와이어 및 케이블 박람회 2026 [Wire&Tube Shanghai 2026]	26년 9월 21일 ~ 9월 24일	중국 / 상하이
12	어반스틸 엑스포 2027 [USE 2027]	27년 4월 20일 ~ 4월 23일	독일 / 뒤셀도르프

- 

고객의 일정과 목적에 최적화된
맞춤형 일정 구성 및 솔루션 제공
- 

글로벌 박람회 및 전시회
에어텔 및 입장권 예약
- 

국가별 비자 신청 대행
- 

개별여행, 인센티브 관광
MICE 등 여행 솔루션 제공

www.sn miles.com

기업 전문 여행사, **에스앤마일즈**



QR코드 스캔
카카오톡 채널 연결
등록후 상담원연결 가능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20 S&M빌딩 6층
문 의 : 강성민 차장 T. 02-3487-2800 F. 02-583-4135 E. smkang@snmiles.com

경북도·포항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투자 유치

포항 영일만 산단 LFP 양극재 생산설비 구축

5000억 규모 투자양해각서 체결
연간 5만t 규모 양극재 생산 전망
삼원계 전구체 사업 단계적 추진

포항시와 경북도는 19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와 5000억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일만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타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엄기천 포스코퓨처엠 사장, 김동환 주식회사 피노 CEO,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4만 5, 198.8㎡ 부지에 ESS 및 전기자동차용 LFP 양극재 생산설비를 구축하기 위해 약 5000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총 생산 규모는 연간 5만 톤, 에너지 용량 기준 연간 29GWh에 이르며, 투



포항시와 경상북도는 1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와 MOU를 체결했다.

자가 완료되면 25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돼 지역 일자리 확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노와 포스코퓨처엠의 합작사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는 당초 삼원계(NCM) 전구체 양산을 목표로 설립됐으나, AI 데이터센터 확산 등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시장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LFP 양극재 소재 산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다. 향후에는 시장 여건과 수

요에 맞춰 삼원계 전구체 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투자 유치로 포항은 국내 LFP 배터리 소재 산업 생태계 구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향후 삼원계 전구체 사업까지 확대될 경우 삼원계 전구체와 LFP 양극재를 아우르는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글로벌 통상 여건 악화와 제조업 경기 둔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항을 선택해 대규모 투

를 결정해 준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와 관계 기업 임직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포항의 이차전지 소재 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코퓨처엠과 피노가 투자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주)가 포항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포항=김진곤 기자 jing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수산업·어촌 발전 간담회’ 개최

부산시는 20일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에서 박형준 시장과 기장군 어촌계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 논의 안건은 ▲연안들망(분기초망) 금어기 합리적 조정 ▲비어업인 해루질 관련 대책 마련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확대 등 숙원 과제들이다.

시는 어업 규제 완화, 시범 사업 실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및 조례 제정,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부산 전역에서 현장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하동군

야간 민원실 주2회 확대 운영

하동군이 직장인과 주민 편의를 위해 운영해온 야간 민원실을 올해부터 주 2회로 늘린다. 군은 2026년부터 기존 화요일에만 운영하던 야간 민원실을 목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확대 운영되는 야간 민원실은 ‘화목한(火木限) 야간 민원실’로 명명됐다.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된다는 뜻과 함께 친절하고 따뜻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군 관계자는 “군민 한 분 한 분의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북교육청

초·중학교 다국어 교육자료 보급

경북교육청이 이주배경 가정 학부모들의 자녀 교육 이해를 돕고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자 다국어 교육자료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2023년 발간된 자료를 전면 개정하고 캄보디아어(크메르어)를 신규 추가해 모두 7개 언어로 만들어졌다.

초등학교용은 초등학교 살펴보기, 학교 행사, 올바른 학습 습관, 즐거운 학교생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이주배경 학생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중학교용은 학교생활, 학습·평가, 진로·진학, 학생 생활 등으로 돼 있다.

/안동(경북)=김준한 기자 kih9@

울산시, 복지분야 예산 대폭 확대

돌봄서비스·노인일자리 등 1.8조 투입
김두겸 시장 “체감 가능한 정책 실현”

울산시는 올해 복지 분야에 전년보다 1716억원 늘어난 1조 8326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는 시 전체 예산의 32.47%에 달하는 규모다.

시는 고령화 가속과 1인 가구 증가, 돌봄 취약 가구 확대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시민이 일상에서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주거와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한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통합지원협의체를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 사후 관리까지 연속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청년미래센터를 통해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상담, 일상 돌봄,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도 펼친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울산 거주 외국인 가정의 3~5세 아동 보육료 지원도 처음 시행된다.

노인 일자리는 전년보다 119억원 늘어난 877억원을 투입해 역대 최대 규모인 1만 8584명에게 제공한다.

김두겸 시장(사진)은 “시민의 삶 전 주기를 촘촘히 잇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울산=박기선 기자 metrobusan7@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행정력 집중

해조류 기반 특화산업 구조 전환

완도군이 해조류를 기반으로 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중이다.

군은 국내 최대 해조류 생산지로 해조류산업이 원물 생산 중심에 머무르는 산업적 확장에 제약이 있어 이를 돌파하고자 해조류 특화 해양바이오산업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앞서 군에는 전남해양수산과학원(수산종자연구소), 전남바이오진흥원(해양바이오본부), 조선대학교 해양생물연구교육센터 등 연구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수년간 국고 건의와 공모사업 유치 등을 통해 산업 토대를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했다.

또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에는 현재 26개 기업이 입주해 제품 개발



완도군 해조류 스마트 팩토리 조감도. /완도군

과 사업화를 진행 중이다.

해조류 활성 소재 인증·생산 시설(2026년 준공 예정), 해조류 바이오 스마트 팩토리(설계비 확보) 등 대규모 시설 건립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조류 중심의 해양바이오산업은 우리 군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시설 완공과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완도를 해양바이오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경남 직업계 고교생 36명 공직 합격

경남도교육청 직무중심 교육 성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공직 채용에서 도내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과 졸업 예정자 36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합격 인원은 국가직 공무원 10명, 양산·통영·진주·창원·거제 등 11개 시·군 소속 지방직 공무원 16명, 경남도교육청 소속 지방직 공무원 3명, 교육공무직 7명이다. 공직 전 분야에 직업계고 출신이 고르게 진출한 것이 특징이다.

국가직 합격자는 행정, 세무, 관세,

시설, 기계, 전기, 농업 등 전공과 직무가 정확히 연계된 직렬에서 나왔다. 전공 심화와 직무 중심 교육을 지속해 온 성과로 풀이된다.

지방직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합격자도 기술직과 현장 지원 분야 중심으로 선발됐다. 학교에서 쌓은 실무 역량이 공직 현장에서 바로 통하는 경쟁력을 확인한 셈이다.

이일만 진로교육과장은 “직업 교육 기반 공직 진출 모델을 지속 확대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지를 공공 분야 전반으로 넓히겠다”고 밝혔다.

/경남=이도식 기자 metrobusan@

영양군, 농번기 인력난 해소 팔 건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직접 선발

영양군은 농번기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농업 인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2026년 신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베트남 현지에서 처음으로 직접 선발한다.

이번 현지선발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베트남 다낭시 화티엔면에서 진행되며, 3~4월 도입 예정인 1·2차 계절근로자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가 희망 근로자(재입국)를 제외한 신규 근로자 300여 명을 직접 선발할 계획이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서류 심사

방식에서 벗어나, 현지를 직접 방문해 면접과 실기 평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발을 진행한다. 현지 면접에는 영양군 계절근로자 담당팀과 베트남 화티엔면 인력 선발 담당자들이 함께 참여해 선발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선발 과정은 색맹 검사를 포함한 기초 체력 검사와 농작업 수행 능력을 확인하는 기초 영농 테스트를 통해 농작업 부적격자를 1차로 선별한 뒤, 근무 의지와 태도, 성실성, 이해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농가 요구에 부합하는 인력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부산시교육청

해양산업 분야 교육사업 확대

부산시교육청은 올해 해양도시 부산의 정체성 강화와 미래 해양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산의 해양과 미래’ 교과서를 개발해 희망 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해양문화 아카데미’, ‘극지·해양해설사 파견 프로그램’ 등 해양 전문가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해양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부산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교육을 위해 ‘해양생태교육 리더학교’ 15개교를 신규 운영한다. 학교가 자율적으로 해양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이도식 기자

두쫘쿠 열풍… 업계, 원재료 물량확보 ‘치열’

〈두바이 쫘득 쿠키〉

핵심재료 피스타치오·카다이프
품귀현상·환율 영향에 가격 폭등

CU, 두바이 관련 제품 가격인상
세븐일레븐, 대량매입해 단가 방어
이마트, 내달 카다이프 판매 시작
롯데마트, 스프레드 도입 검토

유통가가 ‘두바이 쫘득 쿠키(두쫘쿠)’ 열풍에 연이어 미투 제품을 선보이며 원료 확보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두쫘쿠가 반짝 유행에 그칠 거란 예상을 뒤집고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을 견인하는 흥행 수포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유통업계는 물론 개인 카페까지 두쫘쿠 판매에 뛰어들며 원재료인 피스타치오와 카다이프면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각 사는 원료를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최근 두쫘쿠의 핵심 재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미국산 껍데기를 깎아 피스타치오 알맹이의 국제 시세는 현재 파운드당 약 12달러로 1년 전과 비교해 1.5배 수준으로 뛰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와 환율 영향이 겹치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인 이란도 최근 몇 년 가뭄과 물 관리 문제로 피스타치오 생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CU가 새롭게 선보이는 두바이 신상 디저트의 모습.

/CU

소비자가 체감하는 국내 시세 변동 폭은 더 크다. 가격비교 사이트 다나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기준 1만 9600원 수준이던 한 피스타치오 1kg 제품 가격은 현재 12만 185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한 달 사이 6배가 넘게 폭등한 셈이다. 카다이프도 품귀 현상을 빚으며 1kg당 3만~5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재료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대체품을 활용한 이색 레시피까지 등장했다. 카다이프 대신 식감이 비슷한 소면을 튀겨 넣거나, 시판 중인 찹쌀떡과 초코파이를 변형해 두쫘쿠 식감을 재현하는 방식이다.

원가 부담이 현실화되자 잇달아 두쫘쿠 관련 제품을 내놓은 편의점 업계

도 대응에 나섰다. CU는 최근 원가 상승분을 반영해 두바이 스타일 관련 제품군 가격을 12.9%에서 19.4%까지 인상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이후 누적 판매량 830만개를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지만 치솟는 재료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아직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편의점 업계는 두바이 상품군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 CU는 이달 14일부터 카다이프 함량을 높인 두바이 미니 수건 케이크(4900원), 한입 두바이 쫘득 찹떡(3900원), ‘두바이 쫘득 초코(3200원) 등을 선보인다. 세븐일레븐은 이달 1일 카다이프 쫘득볼에 이어

18일 두바이식 카다이프 풍카롱(3200원)을 내세운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위낙 인기 있는 상품이다 보니 제조사 측에서도 당장의 손익보다는 판매량 확대에 집중하고 있어 아직 공급이 인상 요청이 없는 상태”라며 “유통사 차원에서도 가격 방어를 위해 제조사와 긴밀히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 역시 “예상보다 수요가 폭발해 물량 확보가 어렵지만 제조사와 소통하며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븐일레븐 관계자는 “유행 초기부터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1만 2000여 개 점포를 기반으로 한 대량 매입 능력으로 단가를 방어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이커머스도 원료 확보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마트와 트레이더스에서는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피스타치오와 마시멜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7%, 253% 급증했다. 이에 이마트는 신규 업체를 발굴해 2월 중 카다이프면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역시 피스타치오 매출이 16% 늘자 협력 밴더를 통해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도입을 검토 중이다. 롯데온은 해외직구 기획전을 열어 관련 매출을 전월 대비 5배나 끌어올렸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이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128% 늘어

기간 늘리고, 상품권 혜택 확대 영향
대량구매 매출 28% 늘어 실적 견인

이마트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8일까지 24일간 진행한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28%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는 ‘얼리버드’ 고객 트렌드에 맞춰 사전예약 기간을 지난해보다 9일 늘리고 기간 및 금액대별 상품권 증정 혜택을 최대 750만원까지 확대한 전략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 번에 선물세트를 100개 이상 구매하는 ‘대량 구매’ 매출이 28% 늘어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대량 구매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에 나선 이마트 용산점 매대 모습.

/이마트

품목 중에서는 3만원대 실속형 구성이 돋보이는 조미료와 통조림 선물세트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50만 개 이상의 판매고를 올렸다.

카테고리별로 살펴보면 육류는 10만

원 이상 프리미엄 세트가 강세를 보였다. 특히 ‘피코크 직경매 암소 한우구이 세트’ 매출은 2배 이상 급증했다. 과일은 3~5만원대 사과·배 세트와 귤세트(114% 신장)가 인기를 끌었으며, 일상

/손종욱 기자

컬리 ‘AI 스튜디오’로 다양한 프로필 만드세요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구글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이미지 생성 서비스 ‘AI 스튜디오’를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AI 스튜디오는 사용자가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면 인형, 영화배우, 레트로 캣, 한복 등 다양한 테마의 프로필 사진으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컬리 앱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구현 과정에 구글의 생성형 AI 모델만이 활용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달 중순 컬리 내부의 기획자, 엔지니어, 디자이너, 마케터 등이 모여 시작한 사내 사이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지난 12일 정식 오픈한 이후, 별다른 홍보 없이도 입소문을 타며 출시 일주일 만에 누적 이미지 생성 건수 7만여 건을 기록했다.

컬리 회원은 누구나 매일 한 장의 AI 프로필 생성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친구에게 공유한 링크를 통해 이미지가 생성되면 추가 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신규 이용자 유입과 앱 재방문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컬리는 쇼핑 기능을 넘어 고객이 앱 내에서 즐겁게 머물 수 있는 체류형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손종욱 기자



오리온 발렌타인데이 한정판 ‘투유 저당’ 초콜릿

오리온은 발렌타인데이 시즌 한정판으로 당 부담을 줄인 ‘투유 저당(사진)’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투유 저당은 당 함량을 방울토마토 4알 분량으로 설계했다. 제품 한 개를 다 먹어도 섭취 당은 2g에 불과하다. 시중 판매되는 초콜릿의 평균 당 함량보다도 80% 이상 낮은 수준이다. 30%가 넘는 카카오 함량으로 카카오 특유의 진한 농도감과 씹살한 여운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맛을 완성했다.

오리온은 헬스플레저, 저속 노화 등 건강 트렌드가 지속됨에 따라 발렌타인데이 시즌에도 초콜릿을 건강하게 즐기려는 소비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저당 초콜릿을 개발했다.

실제로 저당 관련 제품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월 선보인 ‘오!그레놀라 저당 통보리’는 당 함량은 낮으면서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으로 입소문 나며, 일부 판매처에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당에 대한 부담은 덜면서 카카오 본연의 품미에 집중한 저당 초콜릿을 개발했다”라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백 강남점, ‘엔하이픈’ 미니 7집 팝업

오는 28일까지… 친필사인 행사도

신세계백화점이 글로벌 그룹 엔하이픈(ENHYPEN)의 미니 7집 ‘THE SIN : VANISH’ 발매를 기념해 이달 21일부터 27일까지 강남점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지하 1층 특설 행사장에 마련된 이번 팝업스토어는 지난 16일 발매된 새 앨범의 독창적인 서사를 공간에 구현했다. 방문객들은 인간과 뱀파이어가 공존하는

세계관 속에서 금기를 깨고 도피하는 연인의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체험하며 앨범의 감동을 느낄 수 있다.

현장에서는 총 4종의 테마로 구성된 신규 앨범을 비롯해 아크릴 포토 키링, 의류, 파우치 등 총 11종의 공식 상품(Merch)을 만날 수 있다.

팬들을 위한 풍성한 사은 행사도 마련됐다. 오프라인 팝업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멤버들의 친필 사인이 담긴 플라로이드를 증정하는 스페셜 이벤트를 진행한다. /손종욱 기자

CU, ‘삼송빵집’ 시그니처 베이커리 선택

편의점 스타일 ‘옥수수빵·고로케’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CU가 대구를 대표하는 유명 베이커리 ‘삼송빵집’과 손잡고 차별화된 빵 신제품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삼송빵집은 60년 이상의 전통을 자랑하는 곳으로, 전국 빵 마니아들 사이에서 이른바 전국 5대 빵집으로 불리는 명소다. CU는 편의점 빵에 대한 높아진 고객 눈높이를 충족하고 베이커리 트렌드를 선도하기 위해 이번 협업을 기획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은 삼송빵집의 시그니처 메뉴인 통옥수수빵과 고로케를 편의점 스타일로 재해석했다.

우선 ‘옥수수 크림치즈 쫘득빵(3000원)’은 쫘득한 빵 속에 옥수수알갱이와 크림치즈를 채웠다. ‘옥수수 크림번(3400원)’은 옥수수 맛 크림을 가득 넣고, 겉면에는 옥수수 크림블을 올려 바삭함을 더했다.

식사 대용으로 즐길 수 있는 ‘콘마요 고로케’ 2종(햄도파렐라, 떡갈비)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 /손종욱 기자

‘색조’에 힘 싣는 K-화장품 제조사… 글로벌 시장 정조준

한국콜마, 소재 개발 협력체계 구축
지난해 하반기 미국 제2공장 가동
코스맥스 ‘셰이드 아틀라스’ 공개
국가별 데이터 바탕 전략 고도화

국내 화장품 제조 기업들이 글로벌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K뷰티가 스킨케어는 물론, 메이크업 제품으로 영향력을 넓힐 뿐 아니라 색조 부문 기술력이 신규 해외 고객을 확보하는 핵심 카드로 떠오르고 있다.

20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메이크업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한국콜마는 지난 16일 미국 최대 화학기업 이스트만과 ‘친환경 메이크업 소재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색조 화장품에 사용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대체할 친환경 재생 소재를 개발한다.

색조 화장품은 발립성, 밀착력, 지속력 등을 갖춰야 하는 특성상 합성 소재



코스맥스는 지난 14~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코스메윅 도쿄 2026’에서 기업 부스를 운영했다. /코스맥스

가 주로 쓰이고 있다. 이와 차별화된 천연 소재로 나무에서 추출 가능한 셀룰로오스, 자연 분해가 가능한 폴리머 등을 활용한다.

한국콜마는 이번 협업으로 확보하는 차세대 소재를 제품에 적용해 글로벌

색조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미와 유럽에서 고객사의 다양한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수주 실적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콜마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미국에서 제2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기존 제1공장에 더해 제2공장을 준공함으로써, 제1공장은 색조 화장품을, 제2공장은 스킨케어와 선크어를 생산하고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친환경 소재 분야에 강점을 지닌 이스트만과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지속 가능하면서도 우수한 기능성을 동시에 갖춘 차세대 메이크업 소재로 글로벌 고객사와 접점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코스맥스도 맞춤형 조색 기술력 등을 앞세워 글로벌 메이크업 시장을 공략한다.

코스맥스는 최근 일본에서 진행된 일본 최대 규모 뷰티 전시회 ‘코스메윅 도쿄 2026’에서 자사의 글로벌 컬러 트렌드 연구 능력을 집약한 ‘셰이드 아틀라스’를 소개했다.

해당 서비스는 진출 국가, 목표 소비자층 등 고객사 요청 사항, 최신 유행, 라이프 스타일 등을 반영한 맞춤형 색상 컨설팅을 제공한다. 코스맥스는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축적한 국가별 베이스 메이크업 데이터를 바탕

으로 전략을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코스맥스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선크어, 에센스, 립, 마스크 팩 등에서 베이스 메이크업 제품으로 K뷰티 인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기존 스펀지 형태 쿠션 파운데이션에서 메시 쿠션 파운데이션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변화하고 있는 데 발맞춰 코스맥스는 메시 쿠션 제형을 선보이고 있다.

코스맥스는 일본뿐 아니라 미국 등에서도 색조 제품을 중심으로 전략 품목 확대에 나서고 있다. 코스맥스의 미국 사업 내 색조 비중은 지난해 2분기 59%, 3분기 52% 등을 기록하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미국에서 코스맥스는 컨실러, 블러셔 등 색조와 스킨케어 제품의 판매가 함께 늘어나며, 전년 동기 대비 14% 늘어난 36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코스맥스 관계자는 “메이크업 제품에 코스맥스만의 글로벌 조색 기술을 더해 ‘K뷰티’ 가치를 프리미엄 급으로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JW중외제약, ‘JPMHC’서 신약개발 논의

탈모·안과·염증성 질환 치료제 등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 협력 모색

JW중외제약은 지난 12~1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들과 사업개발(BD) 미팅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매년 전 세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과 투자기관이 한자리에 모이는 글로벌 최대 규모의 헬스케어 투자 행사다.

JW중외제약은 이번 행사에서 해외 제약사들의 요청에 따라 다수의 일대일 미팅을 진행했다. 미팅에서는 ▲탈모

치료제 후보물질 JW0061 ▲안과질환 치료제 JW1601 ▲STAT6 저해제 기반 염증성 질환 치료제 등 주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 및 기술 제휴 가능성을 논의했다.

JW0061은 안드로겐성 탈모증 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GFRA1 작용제다. 최근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임상시험계획(IND)도 신청했다.

히스타민 H4 수용체 길항제인 JW1601은 기존 개발 전략을 재검토해 안과질환 치료제로 적응증을 변경했으며, 현재 임상 2상 진입을 준비 중이다. STAT6 저해제는 호산구성 식도염

등 제2형 염증성 질환에 쓰이는 경구용 혁신신약(계열 내 최초) 후보물질이다. 특히 STAT6는 글로벌 제약 업계가 주목하는 신규 기전을 갖춰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적응증에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해당 연구는 2025년 국가신약개발사업 과제로도 선정된 바 있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글로벌 제약사들과 직접적으로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연구개발 성과를 기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영국 뷰티 플랫폼서 ‘설화수’ 만난다

‘컬트 뷰티’ 공식 입점

아모레퍼시픽은 글로벌 럭셔리 뷰티 브랜드 설화수가 영국 온라인 뷰티 플랫폼 ‘컬트 뷰티’에 공식 입점했다고 20일 밝혔다.

설화수는 브랜드 대표 제품 윤조에센스, 자음생크림 등을 선보인다. 윤조에센스는 스킨케어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독자 성분 자음단, 500시간 자연 숙성을 거친 인삼 소재 림파나스 등을 함유한다. 자음생크림은 고기능성 항노화 크림이다. 희귀 인삼 사포닌을 6000배 농축한 진세노믹스, 인삼 유래 펩타이드 등이 피부 재생력을 높인다.

영국은 뷰티 문화와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럭셔리 소비자층이 형성된 시장으로 알려졌다. 컬트 뷰티



설화수 ‘윤조에센스’(왼쪽) 자음생크림.

도 브랜드 선별에 스토리, 제품력, 지속가능성 등 다각도 평가 기준을 적용해 높은 신뢰도를 구축하고 있다.

설화수는 현지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향후 영국 내 오프라인 유통 채널 협업 가능성도 검토하는 등 브랜드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영국은 유럽과 중동을 잇는 전략적 거점이다. 설화수는 영국에서 유럽 전역으로 시장 공략을 확장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청하 기자

“설 명절엔 스타벅스 기프트 상품 어때요?”

사전 예약기간 2배로 늘리고
할인 쿠폰·별 적립 등 혜택

스타벅스 코리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쿠키, 커피, 굿즈 등으로 구성된 ‘설 기프트 상품’을 선보이며 20일부터 스타벅스 앱 내 온라인 스토어에서 사전 예약을 시작했다.

올해는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전 예약 기간을 지난해보다 두 배 늘려 2월 2일까지 14일간 운영한다. 사전 예약 고객에게는 전 상품 무료배송과 발송일 지정 서비스가 제공되며, 할인 쿠폰과 별 적립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이번 설 기프트 상품은 5만 원 내외의 가격대로 구성해 부담을 낮췄다. 설 분위기를 살린 푸드 상품으로는 ‘아몬드 정과 세트’, ‘피넛초코칩떡과이’, ‘어썬티드 쿠키 텀 세트’ 등 쿠키류와 전통 간식 ‘우리쌀 전병’이 출시된다. 일부 상



스타벅스 설 기프트 상품인 ‘어썬티드 쿠키 텀 세트’를 전달하는 모습. /스타벅스 코리아

품은 매장 전용으로 판매되며, 설 전용 쇼핑백과 포장 서비스도 제공된다.

커피 기프트로는 비아(VIA)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비아 어쇼트먼트 세트’와 드립백 원두와 머그를 함께 구성한 ‘오리가미 & 머그 2P 세트’가 온라인 스토어 한정으로 판매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알테오젠-테사로 독점 라이선스 체결

도스탈리맵의 피하주사 제형 개발

알테오젠은 GSK의 자회사인 테사로(Tesaro)와 하이브로자임(Hybrozyme)기술이 적용된 ALT-B4를 활용한 도스탈리맵의 피하주사(SC) 제형 개발 및 상업화를 위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테사로는 알테오젠의 하이브로자임 기술을 적용한 히알루로니다제 ALT-B4를 사용하여 PD-1 억제제 ‘도스탈리맵’의 피하주사 제형을 개발 및 상업화할 수 있는 독점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알테오젠은 이번 계약을 통해 2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수령하며, 개발, 허가 및 매출 관련 주요 마일스톤 달성시 2억 6500만 달러의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케라논 연고’로 수분 더하고 각질은 안녕

동아제약, 우레아·살리실산 복합 처방

동아제약은 피부 과다각화 치료제 ‘케라논 연고(사진)’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케라논 연고는 일반의약품으로 우레아와 살리실산을 복합 처방해 두꺼워진 각질 관리에 효과를 갖췄다.

주성분인 우레아는 피부 수분 손실을 줄이고 각질층의 수분 농도를 높여 두꺼워진 각질을 부드럽게 한다. 여기에 살리실산 5%를 더해 각질 완화뿐 아니라 각질 제거까지 가능하다.

텍스판데놀과 쉐어버터를 첨가해 자극 완화와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피부에 밀착되는 코팅 밤 제형이 유효 성분의 밀폐력을 높여 지속적인 보습 효과



를 유지해 준다.

과다각화증은 피부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져 피부 표면이 단단해지고 거칠어지는 증상이다.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에서 각질이 제대로 탈락되지 않으면 피부가 하얗게 일어나거나 다소 어두운 색으로 착색되기도 한다. 케라논 연고는 1일 1~2회 환부를 깨끗이 씻은 후 도포하면 된다.

/이청하 기자



www.newsis.com



뉴스시는 대한민국 뉴스의 허브(Hub)입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를 비롯한 국내 주요신문과 포털·인터넷 매체 등 수많은 고객사가 뉴스시와 손을 잡고 뉴스시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뉴스시가 전국 취재망을 통해 24시간 생산한 뉴스는 신문·잡지·인터넷 매체부터 정부기관 및 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배포되어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공급되고 있습니다.

뉴스시는 하루 평균 3000여 개 기사와 사진을 제공합니다



출고기사. 1500여개



사진기사. 1500여개

뉴스시는 젊습니다

생각이 젊고 행동이 젊은 뉴스시!

시장독점에 대항해 설립된 뉴스시는 좀 더 능동적, 좀 더 적극적, 좀 더 공격적으로 세상을 바꿔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협, 신입 직원들 ‘농업·농촌·국민위한 역할’ 교육

농협이 신입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국민을 위한 농협의 역할 및 가치’ 등에 초점을 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채용된 법농협 신규직원 236명(중앙회·은행·생명·손해 191명, 기타 계열사 45명)은 최근 4주간의 입문 교육을 받았다. /농협



메인비즈협회, 미안마 한인봉제협회와 MOU

메인비즈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한 디지털협업공장 섬유 컨소시엄이 미안마 진출길을 넓혔다. 20일 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디지털협업공장 섬유 컨소시엄이 미안마 한인봉제협회(KOGAM)와 섬유·봉제 산업 분야의 상호 교류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메인비즈협회



몽골 금융당국, ‘K-보험 인프라’ 보험개발원 방문

보험개발원이 몽골 금융위원회(FRC)와 의무보험협회(A MI) 등 정책당국·유관기관을 대상으로 한국 보험산업의 선진 시스템 연수를 진행한다. 몽골 금융당국이 연수단을 직접 이끌고 방한한 만큼, K-보험 IT·데이터 인프라가 자국 보험시장 현대화의 핵심 벤치마킹 모델로 부상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개발원

삼양그룹

故 김상하 명예회장 5주기 추도식

삼양그룹은 20일 서울 종로구 본사 강당에서 고(故) 김상하 명예회장(사진)의 5주기를 기리는 추도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김 명예회장은 2021년 1월 20일 향년 95세로 별세했다. 이날 추도식에는 장남인 김원 삼양사 부회장과 차남 김정 삼양패키징 부회장을 비롯한 직계가족과 김운 삼양그룹 회장, 김량 삼양사 부회장, 김담 경방타임스케어 대표 등 친인척, 전·현직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또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전 회장과 조건호 고문 등 전·현직 임원도 자리를 함께했다. /원관희 기자 wkh@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이사장 선임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026년도 제1차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사진)을 임기 2년의 제17대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20일 밝혔다.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은 1967년생으로 1989년 연세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고 2012년에는 미국 뉴욕대(NYU)에서 경영학 석사과정을 이수했다. 권 회장은 동국제약 창업주 고(故) 권동일 회장의 장남이기도 하다. /이청하 기자



제네시스, 다보스서 ‘모터스포츠·고성능 혁신’ 알린다

스위스 아메론 호텔에서 2종 전시 GV60 마그마 첫 퍼포먼스 모델 GMR-001, 실전앞둔 디자인 선포

제네시스는 2026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이 개최되는 스위스 아메론 호텔에서 ‘GV60 마그마’와 ‘GMR-001 하이퍼카’ 차량을 전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럭셔리 고성능 모델 전시를 통해 브랜드 확장과 혁신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다보스포럼은 세계 각국의 고위급, 정·재계 및 학계 인사 등이 참석해 경제를 비롯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간 협력과 해결책을 모색하는 국제회의다. 올해에는 현지시간 19~23일 5일간



제네시스가 스위스 다보스에 위치한 아메론 호텔에 전시한 ‘GV60 마그마(왼쪽)’와 ‘GMR-001 하이퍼카’.

‘대화의 주제’를 정신으로 열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여한구 산

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전 세계 30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오비맥주, 시니어 문화접근성 높인다

행복도서관 10주년 캠페인 영상 공개

오비맥주는 ‘행복도서관’ 사업 10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사회공헌 캠페인 광고 영상을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복도서관은 오비맥주가 2016년부터 이어온 대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아동센터의 학습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교육자재와 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10주년을 앞두고 지난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시니어로 변경, 노인 복지시설 환경 개선에 나서며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영상은 한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가

‘독자’를 찾는 음성으로 시작된다. 이어 순자, 옥자, 영자 등 ‘자(子)’가 들어간 이름의 할머니와 삼대독자 할아버지가 등장하고, 영상 말미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통해 오비맥주 행복도서관에서는 누구나 ‘독자(讀者)’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다.

영상에는 전문 배우가 아닌 실제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출연해 진정성을 높였다.

지난해 개관한 행복도서관 12호점인 청주시종합노인복지관에서 촬영되었으며, 해당 복지관에서 열린 ‘시니어 배우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어르신들이 배우로 참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윤주모의 손맛, 편의점서 즐긴다”

세븐일레븐, 협업 상품 3종 선포

세븐일레븐은 최근 인기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서 맹활약하며 화제를 모은 윤나라 셰프와 손잡고 오는 2월 3일 다양한 푸드 간편식을 선보인다고 20일 밝혔다.

윤나라 셰프는 해방촌 ‘윤주당’의 오너 셰프로, 직접 빛은 전통주와 감각적인 한식 안주를 선보여 ‘윤주모’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최근 방송된 요리 경연에서 뛰어난 실력으로 최종 톱5에 진출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이번에 선보이는 상품은 ▲윤주모 축죽갈비 무생채 삼각김밥 ▲윤주모

축죽갈비맛 토스트 ▲윤주모 매콤갈비맛 썬버거 등 총 3종이다. 윤 셰프가 경연 톱7 진출전에서 1위를 차지하며 극찬을 받았던 메뉴 ‘박포갈비와 무생채 썬’의 핵심 재료인 갈비, 무생채, 썬장의 조화를 편의점 간편식으로 완벽하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삼각김밥은 달콤한 갈비에 비법 무생채를 곁들였으며 썬버거는 SNS에서 화제가 된 윤주모표 썬쌈 레시피와 청양고추, 로메인을 더해 풍성한 식감을 살렸다.

세븐일레븐은 신상품을 기념해 다음달 28일까지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롯데카드로 결제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손종욱 기자 handbell@

부음

▲최복남 씨 별세, 오병근(데일리로그 편집국장)씨 모친상 = 20일, 태백문화장례식장 특실, 발인 22일 오전 8시, 장지 태백공원묘원. 033-552-4444

▲이순원씨 별세, 유창민(태안군 민원봉사과장)씨 모친상=19일, 태안군보건의원 상례원 1층 2분향실, 발인 21일, 장지 태안군 영묘전. 041-671-5302

CJ문화재단, 한국뮤지컬어워즈 공로상

창작지원 ‘스테이지업’ 77편 개발

CJ문화재단이 국내 창작 뮤지컬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10회 한국뮤지컬어워즈’ 공로상을 수상했다. 재단 설립 20주년을 맞아 거둔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CJ는 지난 1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그룹 사회공헌재단인 CJ문화재단이 공로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뮤지컬어워즈 공로상은 뮤지컬 산업 발전에 장기적으로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명예 시상으로, 앞서 극단 산울림, 학전 등이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수상은 CJ문화재단이 운영해 온 뮤지컬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 ‘스테이지업(STAGE UP)’의 성과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스테이지업은 작가·작곡가 팀을 공모 방식으로 선발해 창작지원금, 전담 PD 매칭, 워크숍·리딩·전문가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기획형 지원 사업이다. 제작사와 본공연 계약 또는 해외 진출 시 후속



지난 19일 CJ문화재단이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10회 한국뮤지컬어워즈’에서 공로상을 수상한 가운데 민희경 CJ 사회공헌추진단장이 소감을 말하고 있다. /한국뮤지컬어워즈협회

지원도 이어진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77편의 작품이 개발 과정을 거쳤고, 이 가운데 25편이 본공연으로 제작됐다. 대표작으로는 ‘여신님이 보고 계셔’, ‘풍월주’, ‘라흐 헤스트’, ‘홍련’ 등이 있다. 특히 ‘라흐 헤스트’는 한국뮤지컬어워즈 작품상·극본상·음악상을 수상하며 작품성과 흥행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홍련’ 역시 작품상을 수상한 데 이어 중국 상하이·광저우 무대에 오르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해외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신원선 기자

매일유업 메디웰 “혈당, 직접 확인하세요”

‘혈당 챌린저스’ 체험단 모집

매일유업은 균형영양식(환자식) 전문 브랜드 ‘메디웰’이 오는 25일까지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신제품 ‘메디웰 당솔브 호두맛’ 제품과 연속 혈당측정기를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혈당 챌린저스’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평소 혈당 관리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고 싶거나 자신의 실시간 혈당 변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한다. 또한 당뇨, 혹은 당뇨 전단계로 체계적인 혈당 관리 식단이 필요한 이들도 참여 대상이다.

선정된 체험단에게는 메디웰의 신

제품 ‘당솔브 호두맛’ 200mL 1박스(18개입)와 함께 10만원 상당의 연속 혈당측정기가 무료로 제공된다. 체험단은 제품 수령 후 10일간 메디웰 당솔브를 마시며 일상 속에서 혈당 변화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메디웰 당솔브 호두맛’은 편안한 소화흡수와 혈당 관리가 필수적인 당뇨 환자를 위해 설계된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이다.

전문의와 공동 설계로 탄수화물 함량을 국내 출시된 유사제품들 대비 약 67% 감소했으며, 설탕 대신 알룰로스를 사용해 당류 0g을 구현하면서도 건강하고 부드러운 단맛을 냈다.

/신원선 기자

NARA CELLAR

역시! 몬테스

결국! 몬테스



2025 브랜드 고객충성도 대상
와인 부문 2년 연속 1위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예술의 허세와 개념의 비판



홍 경 안 역
시시일각

2023년 스웨덴의 한 전시장. 스위스 출신의 개념미술가 로만 시그너(Roman Signer)는 모래를 채운 붉은색 플라스틱 양동이 열 개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뒤, 맨 아래 양동이에 작은 구멍을 뚫었다. 구멍 사이로 가느다란 모래가 흘러나오자 지지력을 잃은 양동이 탑은 서서히 기울었고, 이내 힘없이 무너졌다. 작가는 이 과정을 ‘시간적 조각’, ‘액션 조각’이라 명명했다.

양동이는 물리 법칙에 따라 쓰러졌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관람객들은 일시성과 유동성을 통한 예술의 본질 운운하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비평가들은 ‘시간의 비가역성’, ‘엔트로피 법칙에 따른 질서의 붕괴’와 같은 거창한 수식어를 갖다 붙였다. 그러자 일개 자연현상은 고도의 사유로 둔갑했고 자칭 ‘세련된 빨치’는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거장의 개념으로 격상되었다.

모래 양동이 사라는 오늘날 미술이 고질적으로 앓고 있는 ‘개념의 비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작품이 제공하는 미적, 실

질적 경험은 극도로 축소된 반면 그것을 둘러싼 해석의 몸집만은 과도하게 팽창한 상태를 말함이다.

예술은 때로 ‘형이상학적 허세’로까지 나아간곤 한다. 2021년, 이탈리아 작가 살바토레 가라우(Salvatore Garau)는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투명한 조각’을 우리 돈 2천여만 원에 판매했다. 그는 이 보이지 않는 조각(바닥에 테이프를 표시된 빈 사각형 구역)이 진공 상태의 공기와 영혼으로 만들어졌으며, 물질성을 제거함으로써 순수한 개념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이 작업이 눈에 띄는 건 예술을 감각과 경험의 영역에서 떼어내어 ‘믿음’의 문제로 이동시켰다는 것이다.

일부 비평가들이 가라우의 작업을 ‘고도의 지적 실험’으로 옹호하는 동안, 다른 한편에서는 우스꽝스러운 말장난이며 과거 이브 클라인(Yves Klein) 등의 선배 작업을 답습한 극단적 촌극이라 평가 절하했다. 나아가, 허풍과 허세 가득한 작업들이 예술로 통용될 수 있는 구조 자체를 먼저 봐야한다는 목소리도 뒤따랐다.

사실 프랑스의 사상이자 장 보드리야르(Jean Baudrillard)는 이미 오래 전 의미 없음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는 현대미술의 구조를 ‘예술의 음모(The Conspiracy of Art)’라 했다. 여기서 음모란 미술시장, 미술관, 비평, 학계가 야합해 아무 가치 없는 것들을 고귀한 예술로 승격시키는 네트워크다. 이 구조 안에서는 그것이 어떤 제도 안에 편입되었는지가 우선한다. 작품의 질이나 밀도가 아니다.

과거의 예술은 형식적 완성도, 미적 경험의 밀도, 감각적 설득력이라는 내재적 기준을 통해 평가되었다. 그러나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 이후, 이러한 기준들은 급속히 ‘낡은 미학’으로 밀려났다. 대신 그자리를 개념과 맥락, 그리고 제도적 승인여부가 대체했다. 문제는 이 전환이 선택지가 아니라 당위처럼 작동한다는 것이다.

물론 예술이 반드시 물리적 실체를 가져야 할 필요는 없다. 작가의 선언과 제도의 수용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는 관점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며, 실제로 동시대미술을 지탱하는 중요한 토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잣대가 되는 순간, 예술은 스스로를 비평 불가능한 영역으로 밀어 올린다. 특히 제도가 모든 것을 예술로 승인할 수 있다면,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는가라는 오늘날의 미술이 진지하게 짚어 봐야할 자문이다. /미술평론가

오늘의 운세 1월 21일 (음 12월 3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작품이 당첨되어 경사 난다. 48년생 건축물 수주가 작더라도 고맙게 여겨 끝까지 마무리할 것. 60년생 부모님께 불평 말고 용돈 좀 챙겨드려라. 72년생 최씨 귀인이 일을 해결. 84년생 상복 수이니 검은 옷을 챙겨둬라.



소

37년생 경제가 어려워 고민이나 며칠 지나 적게라도 해결된다. 49년생 헤어진 연인 생각에 슬퍼 마라. 61년생 들뜬 마음으로 소평하다 과다 지출. 73년생 좋은 일이 있으나 언제나 형제는 뜰어만 간다. 85년생 핑크색에서 행운을.



호랑이

38년생 다리에 힘이 없으니 계단 왕래 때 조심. 50년생 음주는 정말 나쁜 행동. 62년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회사에 출실해라. 74년생 용이 물이 없으면 아무리 보타 못할 터. 86년생 직장 다니는 것이 즐거움인 것을 모르니 한심.



토끼

39년생 자녀의 해외로 근무지 신청은 이루어진다. 51년생 지체가 새로운 일에 빛을 발한다. 63년생 자신감과 실력으로 밝아진다. 75년생 큰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현재 충실. 87년생 우물쭈물하는 동안 기회는 다른 사람에게로 간다.



용

40년생 다이어트보다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했다. 52년생 주변구설만 들지 마라. 64년생 환문 공부로 상승하도록. 76년생 신용 없는 사람과 상대하지 마라. 88년생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하는 것.



뱀

41년생 가벼운 인정에 이끌리는 투자는 유의를. 53년생 강남이나 강북이나 한 뼘 차이인데. 65년생 김씨 직장 선택에 부족한 업무의 일을 도와준다. 77년생 부모님은 언제나 자녀를 걱정하는 마음. 89년생 쥐 원숭이따와 돈거래 말도록.



말

42년생 객기부리다 싸움으로 번진다. 54년생 욕심이 나더라도 순리에 따라서. 66년생 쓸데없는 물건들은 운을 저조하게 한다. 78년생 사려 깊은 처신을 해야 기정을 잃지 않는다. 90년생 뒤늦게 사랑에 안주하려 들다가 쪽방 신세가 된다.



양

43년생 새벽부터 무거운 것 들다가 허리 조심. 55년생 과거의 사연에 의미 부여는 고뇌의 연속이다. 67년생 이웃 직장보다는 현재 직장에 충실. 79년생 삼재이니 방생을 권해본다. 91년생 재물의 쓰임이 많아지지만, 수익도 많아진다.



원숭이

44년생 자식이 결혼 날을 잡게 되니 경사가 만발이다. 56년생 묻혀있던 실력이 발휘된다. 68년생 비교하고 후회하는 자책은 앞날에 방해가 된다. 80년생 돈 냄새를 맡고 오는 감언이설에 주의. 92년생 속 숙였던 두 가지 일이 해결된다.



닭

45년생 천덕귀인의 도움이 있으니 영업은 이익. 57년생 파마보다는 생머리가 어울린다. 69년생 괜한 구설은 오래가지 않으니 힘내라. 81년생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태도는 지양해야. 93년생 치킨과 맥주로 스트레스를 풀고 미래를 재도약



개

46년생 급여가 작아도 취직하라. 58년생 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 움직여라. 70년생 이 글을 읽은 뒤부터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성공해보라. 82년생 운전 시 집중하다 건물목에서 차량 주위. 94년생 옷 작품이 사람들로부터 호응을 얻는다.



돼지

47년생 복권도 사야 당첨의 기회가 오는 것. 59년생 사물의 이치를 몰라도 신용이 있으면 절반의 성공. 71년생 4시경 사고에 유의. 83년생 욕심내다 손해수서 사서 고생. 95년생 송사가 해결되고 근심이 해소되니 조상 덕으로 직장에 충실하라.



김상회의四季 점과 복

인류의 역사를 조망하는 것에는 여러 관점과 방법이 있었지만 필자는 직업 의식상 오지 않은 미래예측에 관심이 지대하다. 천지자연 앞에 나약한 존재로서 무엇보다도 길흉화복과 관련하여 피흉취길에 관심이 많고 고대 문명의 특징 중의 하나가 점占치는 일이다. 따라서 제정일치의 사회였고 미래예측의 노하우를 아는 존재가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으며 세속의 왕이 되었다. 그러면서 시대가 발전하고 진화되면서 제정이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오늘날의 근대문명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는 제정의 분리도 큰 역할을 했다. 그런데도 우주까지 의식이 확장된 오늘날에도 점사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 왜냐! 미래를 아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며니즘은 긍정과 부정의 인식이 공존하는 가운데 또 다른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팁을 주기도 한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이덕무의 저술을 모은 청장관전서(靑莊館全書)에도 보자면 쌀 점을 치는 방식에 대한 기록이 있다. 쌀占을 치는 것은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무속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며 더 고대로부터는 거북이 등 점은 물론 서양에서는 크리스탈 볼이나 점성술 등 나라와 종족마다 다양한 점 치는 기법들이 전해져 내려온다. 이 모두가 민족마다 공통으로 지닌 문화적, 관습적 인식에 기반한 것들이다. 또한, 뭔가 걱정되는 일들이 있게 되면 역시 나름의 비법을 발휘하여 액막이 방법들을 쓰게 된다. 특히 한국인들에게 있어 음력 정월은 한 해의 안녕을 위한 최적기다. 일 년 신수를 점쳐 보고 길흉의 예측 정도에 따라 보통은 음력 정월 보름 이내에 액막이의 일종인 ‘홍수막이(홍수맥이)’ 등의 처치(?) 의식을 행하곤 한다. 이런 행위를 두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은 무지하단 얘기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종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37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41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알맹이 빠진 ‘국대 AI’, 누구를 위한 패자부활전인가



기자수첩
김서현
(IT부)

대한민국 AI 주권을 지키겠다며 야심 차게 출발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가 공허한 울림만 남기고 있다. 정작 판을 키워야 할 대기업들은 줄줄이 보따리를 싸고, 그 자리를 스타트업들이 채우고 있다. 겉보기엔 ‘스타트업의 반란’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관료주의적 경직성과 오락가락하는 행정이 만든 ‘흥행 참패’의 기록일 뿐이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국대’급 후보들의 이탈이다.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NC AI 등 자본과 인프라를 갖춘 기업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패자부활전 불참을 선언했다. 한 번의 탈락으로 낙인찍힌 ‘기술력 부

족’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다시 도전하기엔, 정부가 제시한 ‘물’이 너무나도 자의적이고 소모적이기 때문이다.

업계와 학계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독파모의 가장 큰 결함은 ‘프롬프트 크래치(From scratch, 바닥부터 개발)’에 대한 강박이다. AI 석학 조경현 교수의 비판처럼, 기술의 성능과 활용도보다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형식에 집착하는 것은 지극히 관료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미 글로벌 시장은 효율성과 속도전으로 넘어갔는데, 우리 정부만 ‘독자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에 매몰되어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는 꼴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티프테크놀로지스와 트릴론랩스 같은 실력과 스타트업들이 참전을 선언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과 는 별개로, 프로젝트 자체가 가진 구조적 한계는 여전하다. 이미 4개월 이상 앞서나간 기존 3개 정예팀

과의 격차를 후발주자가 압축적으로 따라잡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정부는 “똑같은 기간을 주겠다”며 공정성을 강조하지만, 기업들에 필요한 건 공정한 시험 시간이 아니라 유연한 지원과 명확한 로드맵이다. 특하면 바뀌는 가이드라인과 ‘패자부활전’이라는 급조된 규칙은 기업들에 불확실성만 가중시켰다.

‘국가대표’라는 이름은 정부가 임명장을 준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시장에서 살아남고 글로벌 무대에서 증명될 때 자연스럽게 붙는 칭호다. 지금처럼 관료적 잣대로 줄을 세우고, 기술의 본질보다 형식적 독자성에 매몰된 프로젝트가 계속된다면 ‘국대 AI’는 그저 정부 보고서 속의 박제된 성과로 남을 뿐이다. 알맹이가 빠진 패자부활전에 박수를 보낼 기업이 얼마나 될지, 정부는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seoh@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하루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8			5	9		7
				2				
					5	6	2	
		4					7	
7		6	9	2				
						9		
1		9	6			4	7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7	2	8	9	6	8	1
2	8	8	6	2	1	9	7	9
1	6	9	8	7	2	2	8	8
8	1	9	7	2	6	9	8	2
6	9	2	1	8	8	7	2	9
8	7	2	9	9	2	8	1	6
9	2	8	1	6	8	1	9	7
7	9	1	8	9	2	2	6	8
2	8	6	9	1	7	8	9	2

서울시, 2031년까지 주택 31만호 공급… 강북 활성화 추진

올해 신년 업무보고

3년째 주택 착공물량 6000호 확대
녹지 생태도심, 비역세권 활성화 등
강북, ‘완성형 균형 발전 모델’로

서울시가 주택 조기착공과 강북지역의 균형 발전을 올해의 중점 업무로 강조했다.

서울시는 20일부터 2026년도 신년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신년업무보고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정책 추진 배경과 과정, 쟁점과 성과는 물론 올해 계획까지 시정 전반을 점검하는 일정이다.

오 시장은 이날부터 29개 실국이 참여한 가운데 순차적으로 업무 보고를 받는다.

1일차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오 시장은 해당 부서 정책과 사업을 보고 받고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 전략을 점검했다.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홍제천 일대 내부순환로 현장을 방문해 강북횡단 지하도고속도로와 관련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호에서 8만 5000호로 6000호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공정 촉진 회의와 행정 지원을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

주택실은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면적 3만㎡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 처분, 이주, 철거까지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

긴다.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민 체감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신혼부부 대상 장기 전세 주택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 보증금 분할 납부제가 도입된다.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을 70%만 납부를 하고 나머지 30%는 퇴거 시 납부하는 제도다. 보증금의 30%는 2.5% 저리를 적용해 부담을 덜어준다.

균형발전본부는 내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 아레나’와 최근 개발 계획을 발표한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광운대 역세권 개발’ 등 3개축을 연결해 강북 지역을 베드타운이 아닌 직주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 모델’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약 5조9000억원 생산 유발 효과 창출이 전망되는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는 올해 초 SH 산업 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선도 기업 입주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 단지 지정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을 진행 중이다.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이를 수용할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연이어 확장되는 선순환 모델로 거듭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경계 지역 중 신내 차량 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이 시작된다.

또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

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다.

도시공간본부는 ‘용산전자상가 특별 계획구역(11개소) 개발’, 유진상가·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 역세권활성화사업’ 등 강북 지역 거점 개발을 추진한다.

녹지 생태 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 녹지축을 비롯해 DDP와 청계천을 잇는 도심 속 녹지를 추가로 확보해 ‘빌딩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도시’ 실현을 앞당긴다.

도시공간본부는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비역세권(성정잠재권)’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재택근무 확산과 산업 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업무·상업 공간을 주거·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고 노후 지하철 역사 시설을 개선한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 개발 사전 협상을 통해 확보한 약 10조원 규모 공공 기여는 강북 권역 개발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사립대 등록금 줄인상… 재정난 vs 학생 부담

한국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
지난해에 이어 등록금 인상 예정
교육 경쟁력 등 위해 필요 입장

주요 사립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자 학생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은 오랜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교육의 질이 떨어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학생들은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데 비해 체감되는 혜택이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주요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이 최근 현실화되며 총학생회들이 저지에 나섰다. 전날 한국외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본부가 추진하는 3.19% 등록금 인상안을

“엄치도, 책임도, 논리도 없는 갑질 인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난 10~12일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2680명) 중 95.49%가 등록금 인상에 반대했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지난 8일 진행된 제1차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회의 이후 “지난 인상 당시 요구안도 충분히 이행되지 않은 현 상황에 학생이 고려되지 않은 학교 측의 일방적인 인상안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을 전제로 한 재정 확충이 아니라 정부의 책임 강화와 대학의 구조적 개혁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며 “학생 동의 없는 등록금 인상,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등심위, 책

임 없는 재정 논의에 학생 사회는 동의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반발에도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은 현실화되는 모양새다. 올해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직전 3개연도(2023~2025)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2배인 3.19%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다.

등록금 인상을 두고 학생들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학 측은 재정난과 교육 경쟁력 약화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보다도 등록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수원시 공립박물관 3곳, 평가 인증기관 선정

수원·수원화성·수원광교박물관

수원시 3개 공립박물관인 수원박물관, 수원화성박물관, 수원광교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2025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에서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증 유효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다.

수원박물관과 수원화성박물관은 2017~2019~2022년에 이어 4회 연속, 수원광교박물관은 2019~2022년에 이어 3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는 공립박물관의 운영 내실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박물관을 3년마다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설립 목적 달성도, 조직·인력·시설·재정 관리, 자료 수집·관리, 전시·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적 책임 등 5



수원박물관 전경.

개 분야를 종합 평가한다.

2025년 평가 대상 전국 공립박물관 296개 중 200개 박물관이 인증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수원시 3개 박물관은 운영, 전시, 유물 수집·보관,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설립 목적 달성도 항목에서 모두 100점을 받았다. /수원(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 “外人 택시불만 7개월간 487건”

택시 정보 무늬 신고 시스템 운영
外人 신고, 전체의 34.3% 차지

서울시가 지난해 6월 전국 최초 ‘택시 정보 무늬(QR) 신고 시스템’ 운영을 시작한 뒤 ‘외국인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12월 ‘택시 QR 불편신고 시스템’을 통해 외국인 불편신고 총 487건을 접수했다. 12월(167건)이 전체 신고의 34.3%를 차지했다.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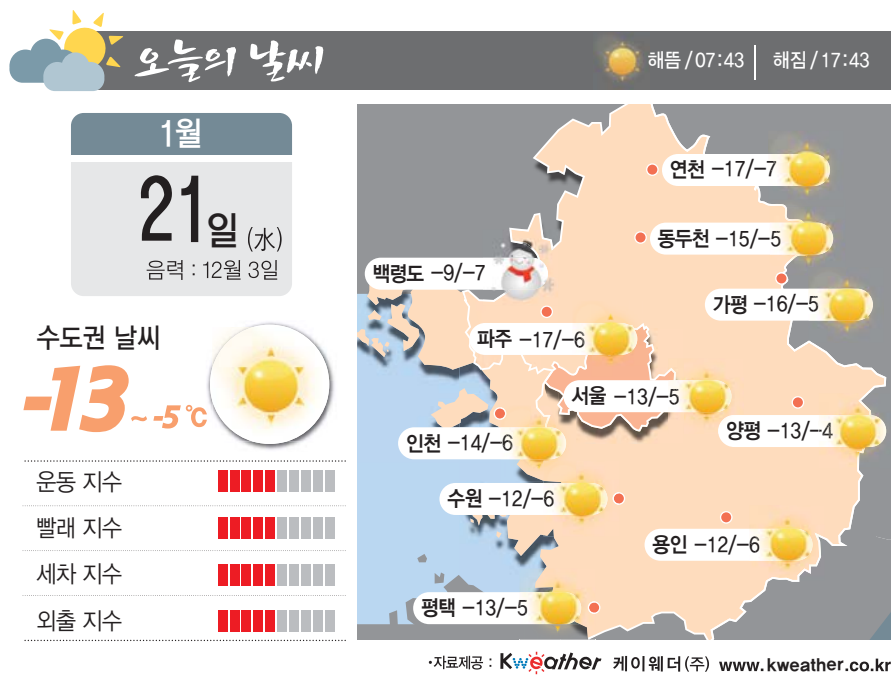
월 93건, 7월 69건, 8월 51건 순이었다.

시는 부당 요금 등으로 신고가 접수된 택시 운수 종사자를 조사 중이다. 그중 8건은 사실 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4일 김포공항에서 외국인 승객을 태우고 연희동으로 운행한 한 택시 기사 A씨가 미터기에 기록된 3만2600원이 아닌 5만6000원을 임의로 징수한 사실이 드러나 ‘부당 요금 징수(임의 요금)’로 처분됐다.

외국인이 택시 이용 중 부당 요금이나 불편을 겪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시는 택시 내부나 주요 관광지 등에 ‘QR 택시 불편신고 시스템’ 안내 붙임 딱지,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서울시 공식 SNS에서도 홍보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택시 이용 불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부당 요금 근절을 위해 시는 택시 영수증에 영문을 병기하고 할증 여부를 표시한다. 플랫폼사별로 각기 다르게 표시했던 용어를 미터기 요금(Meter Fare), 통행료(Toll fee)로 통일한다. /이현진 기자



▲트럼프, 마크롱에 ‘가자 평화위’ 압박…“佛와 인에 200% 관세” /사진 뉴시스
▲美연방대법원 ‘상호 관세’ 판결, 이르면 20일 결론 가능성

▲美재무, EU ‘관세 대응’에 “현명하지 못해…어차피 합의 안 될 것”
▲美민주, 트럼프 ‘노벨상-그린란드’ 연결에 “정신상태 극도로 우려”

▲中관영지 “작년 5% 성장률, 압박 속 中경제 회복력 입증”
▲“우크라이나에 1200조?”…유럽, 트럼프 평화 계획 의심



유통업계
두쫘쿤 열풍에
원재료 확보 치열
L1



Life

화장품 제조사
색조 정조준
글로벌 공략
L2



내부결속 다지고, 원료 확보... 지주사 체질 바꾼 '구조전환'

CEO 와칭

송 호 준

에코프로 대표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는 2023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사장)로 선임된 이후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그룹 사업 구조 전환에 속도를 냈다. 순수 지주사에 머물던 에코프로를 별도 사업을 통해 실적을 창출하는 사업 지주사로 전환시키며 그룹의 체질 개선을 이끌었다. 조직 개선에도 적극 나서 컴플라이언스실, 안전환경실, AI혁신실을 잇달아 신설하며 지주사의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 환경 속에서 원료 경쟁력과 내부 관리 체계를 동시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주사' 전환
잇달은 부서신설 등 적극적 조직개선

임기 초반, 위기에도 책임경영 강조해
내부소통 통해 구조·운영시스템 점검
투명 경영·중장기 전략으로 신뢰도▲

◆소통 중시...책임경영으로 조직 결속 다져
송호준 대표는 활발한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직원과의 소통도 중시, 조직 안정과 사업 연속성 확보에 힘을 쏟았다. 임기 초반부터 위기 국면에서 단기 실적 대응보다는 내부 결속과 운영 안정을 두면서도 책임경영을 강조해 왔다.

임직원 대상 설명회와 내부 소통 채널을 통해 경영 환경 변화와 그룹 전략을 공유했다. 경영 현안을 투명하게 설명하고 중장기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조직 내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시도다. 오히려 리스크와 실적 변동성이 동시에 부각된 시기에도 이사회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와 내부 통제 강화를 강조하며 안정적인 경영 체제 유지를 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단기 대응보다는 사업 구조와 운영 시스템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위기 관리에 나섰다.

삼성SDI 출신으로 전략·기획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송 대표는 구조와 실행력을 중시하는 실무형 경영자로 분류된다. 배터리 소재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에코프로

약력

1965년 3월 출생

1991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1990년 12월 삼성물산 입사

1998년 12월 IBM 비즈니스컨설팅

2000년 3월 액센츄어 파트너

2011년 12월 삼성SDI 기획팀장

2022년 12월 에코프로 대표이사(사장)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투자 우선순위와 사업 효율성을 점검하며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직 내부에서는 회사의 중장기 전략과 경영 방향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으며, 경영진의 메시지 전달 방식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도도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가속...제련업으로 포트폴리오 확장

에코프로의 사업 지주사 전환은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에서 본격화됐다. 에코프로는 2022년 이동채 창업주의 구상 아래 인도네시아 니켈 제련소 지분 투자에 나섰다. 그룹 차원에서 인도네시아 제련소 4곳에 총 7000억원을 투자하며 양극재 핵심 원료인 니켈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구체적으로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 솔라웨시섬 IMIP(모로왈리 산업단지) 내 QMB(지분 9%), 메이밍(9%), ESG(10%), 그린에코니켈(38%) 등 4개 제련소에 지분 투자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확보한 니켈 MHP는 약 2만 8500톤 규모로, 전기차 약 6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물량에 해당한다.

지주사는 이들 가운데 QMB와 메이밍에 단독 투자했고, ESG 제련소, 그린에코니켈에는 계열사와 공동 투자했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국면에서도 대규모 자본적지출(CAPEX)을 감수한 결정이었다. 송 대표는 안정적인 원료 조달과 장기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밸류체인 확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니켈 제련을 통해 확보한 MHP를 외부에 판매하면서 에코프로는 별도 기준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갖추게 됐다.

◆'순수 지주사' 탈피...사업 지주사로 전환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성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에코프로의 별도 기준 매출에서 니켈 MHP 판매 비중은 70%를 넘어섰다. 2025년 3분기 별도 기준 매출액은 1685억원으로, 이 가운데 무역 사업이 1262억원을 차지하며 75%에 달했다.

지주사가 자체 사업을 통해 실적을 창출하면서 에코프로는 순수 지주사에서 사업 지주사로 전환했다. 계열사 배당에 의존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원료 사업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확보한 것이다.

송 대표는 인도네시아 프로젝트의 의미에 대해 "이차전지 제조를 넘어 제련업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그룹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원료 내재화와 사업 다각화를 동시에 달성하며 에코프로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시장에서 중장기 경쟁력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니 제련소 4곳에 투자... 니켈 확보
원료사업으로 안정적 수익 기반 마련

AI 전문가 전면배치, 생산성 혁신 추진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안정성 제고

◆지주사 컨트롤타워 강화...컴플라이언스·안전·AI 전면 배치

송 대표 취임 이후 에코프로 지주사의 내부 기능도 빠르게 고도화됐다. 2023년부터 컴플라이언스실, 안전환경실, AI혁신실이 차례로 신설됐다.

컴플라이언스실은 준법경영과 임직원 행동지침, 계열사 내부통제 이슈를 총괄한다. 법규와 규정, 시장의 요구 수준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 체계를 구축해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안전환경실은 그룹 내 제조 현장의 안전과 환경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이다. 중대 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등 안전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작업 환경 개선과 사고 예방 시스템 정비, 임직원 교육을 통해 사전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AI혁신실은 기존 디지털 전환(DT) 기능을 확대 개편한 조직으로, AI 전문가를 전면 배치해 그룹 전반의 생산성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사무 부문에서는 생성형 AI 기반 업무 자동화를 통해 AI 도입 부서 비율 90%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제조·품질 부문에서는 생산 운영 고도화와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 30% 향상을 추진 중이다. 연구개발 부문에서도 연구 설계 최적화와 실험 자동화를 통해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송 대표 취임 이후 에코프로는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2024년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잇달아 지정되며 대기업집단으로 위상이 높아졌다. 이에 지주사의 관리·전략 기능을 체계적으로 정비했다는 평가도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순수 지주사에서 후자를 내는 사업 지주사로 전환한 데 이어 지주사 본연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강화하고 있다"며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성장한 만큼 지주사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에코프로가 투자한 인도네시아 제련소의 모습.

메트로 한줄뉴스



▲김해FC, 2026시즌 강준모·명세진·김경수·이민영 등 9명 영입
▲부천FC, 수비수 김원준과 2년 재계약 후 3부팀 임대 /사진 뉴스시스

▲KIA, 전지훈련 앞두고 통렬한 반성...“실수 반복하지 말아야”
▲SSG, ‘메디컬 테스트 문제’ 버하겐과 계약 해지...새 외인 베니지아노 영입

▲안우진 연봉 4억8000만원...키움, 2026시즌 연봉 협상 완료
▲MLB 애틀랜타, 김하성 ‘부상 공백’에 FA 마테오와 계약